

푸르러구심소광이란만호랑할제쌍쌍이느는자괴느래를련하야씻가지를차자웅창
조화하니그소리화창하야안류는출풍을춤추고딩초는세우에쳐쳐호티호련을때오
릉쇼년은줄마를멈추고두번을매창가쇼부는단장을저촉하야번화호소리외아리싸
온우음이자고를식고하며출광을다도다가삼출이여류하야락해분분하고서풍이슬
슬흔죽그소리의원하야호련을매렬스옥호는편편이바아지고두번을때가인취슈에
루흔이덤덤하니이느무심자고를유심이드름이라첩이상공을평슈강남에정근을호
번미저련이절역에다시이곳치모히나타축웅의셔리곳흔칼날파풍우곳흔시석에
일편정근이조곰도동치아녀스싱환란에셔나지아니하고다시이디에오르니다만호
하느바느빅발이무정하고호안이유시하야석양자괴심스를촉동하니첩이아지못거
니와오늘날모음이빅년후어디로가나잇가도독이쇼와랑의지견으로엇지이곳흔심
회를두느노내랑과이디에오름도우연호일이오마춤자고를드름도우연호일이라살
아정근을미즘이임의망녕되거늘하물며죽어정근을니즘이리오빅년무양하야편안
이지낸죽빅년지락이오일일을한가하야종용이보낸죽이느일일지복이라셔산에락
조를보내고동산에명월을마즘이무비경개니군중에늬은술이잇거든가져오라내랑
파호련대취하야랑의록록호심회를풀게하리로다호랑이또호미쇼하고다시수빅를
마실시밤이임의집고이슬이옷깃을침노하거늘호랑이종용고와상공이원웅의데중
하심으로취하야제장을디하심이불가호련아니라밤이집고술이독하오니천금지구

를조보하야일시지락을류련치마르시고일즉가심이을홀가하느이다도독이쇼와내
오래비주의즐김이업서홍중이을을하더니금일마춤군중에무스하고이곳경개쾌활
하니잠잔취함이무스불가하리오랑은다시일빅를치라만리타향의이밤이쉽지아닐
가하노라호랑이다시잔와병자는스디라제상삼군이칼을안고창을베여위티호련성
과두려운근심이밤마다안침치못하거늘상공이도라보지아니시고비주의진취함을
일삼고저하시니이느천첩의죄라첩이다시갓가이되시지못할가하느이다도독이호
련노와근일랑의괴석을봄에일분유순호티되업고말을거스려미안하느그무스도리
쇼호랑이머리를숙이고목연랑구에술을다리여잔을쳐오지아니하고도독씩드리며
화호발숨으로느직이고와첩이비록비호가업스나무위부조하야필경필회를드릿
스오니상공의말숨을거스리고취말을순중하리잇고상공이출취장성하야예괴를밋
으시고존례를보중치아니샤장야지음을효측고저하시니엇지련애만리의량당학발
이쇼석에의려하야유절지우하심을성각지아니시느니잇가도독이형과에더욱미타
하야잔을받지아니하고장중에도라오니호원슈셔라와감히안시못하고반향을시립
하얏더니도독이정석와원슈의데중하심으로오래섯심이불안하느도라가슴이가호
가하노라원슈더욱공손이서서물너가지아니하느도독이손야차를불너장중에니르
니도독이분부와원슈를인도하야썰니막초에도라가되내브르기점은다시장중에출
입말라언필에괴석이엄숙하니원슈호일업서들너막초를식손야채종용문와원슈

도독씨무숨미라호일이게시니잇가홍랑왈이느로장의알비아니니과려치말라호더라이날밤에홍원쉬웁복을글으지아니호고던전불미호며싱각호되도독의성품이본디관홍호사편협히성내심을보지못호엿더니금일지스는반드시곡절이잇슴이라명일조연알니라침상에누엇다가싱각왈내본디천호자최로안식으로써사름을섬기며근일규규호풍되만코유순호괴식이업서군지미타이보심이라이엇지나의허물이아니리오호고스스로거울을가져얼굴을보며괴식을곳치고저호야이러듯싱각호애조연심식변되호야잠을일우지못호고던명에원쉬즉시도독장전에니르러감히드러가지못호고방황호더니도독이다시손야차를불너정식왈내어제니른말이잇거늘원쉬장전에니르른엇지호일인고밤비물너가게호라홍랑이즉시도라와조연울을불락호니우읍다양도독의홍랑을스랑호과홍랑의양도독을밋음으로엇지노함이잇스며의심함이성기리오마는대범사름이정이극호즉가리움이잇고친함이갑흔즉노함이쉬우니홍랑의조감과지혜로양도독에게니르러논의셔어리고모움이약호야도독이우손조긋치웃고도독이근심호즉조긋친심호는지라이제의외지척을당호야처음은곡절을의심호고나좋은허물을싱각호며못침리를불락호니이느부부지간근절호모움이오핍진호경계라만일이모움이업슨즉너조의본식이아니오또호니모움이과호즉부덕의손상함이될지니엇지삼갈배아니리오초시양도독이홍랑의충언을듯고심중에탄복호야스랑함이더욱근절호니도로혀념려호되조물이사름을내심애그안식

이고는자느덕이부족호고죄죄성호자는지견이천단호는니이제홍랑을천호지멧히에그단처를보지못호니만일내침혹함이아닌즉홍랑을위호야념례적지아니호도다티업는욕이바아지기쉽고똥다운풀이번성치아니호는니엇지도로혀아쳐롭지아니리오명일의오계동싸호에호이반다시나를독행호게아니호지니잔약호조절을편일로록함이실노불안호지라내어때를두호번롱락호야마타호를보고동중에두어도섭호게호리라호고비쥬간에제미지스를인연호야무정지척을더호니초시원쉬심란이도라와조괴막호애니르러침상을의지호야불언불쇼호고안졌더니손야채와도독이평명에오계동치라가시는군령을고호대원쉬묵묵히싱각호더니표연이니려도독장전에니름애도독이맛춤중용이병셔를보거늘홍랑이장중에돌입호야고왈첩이작일지과느만스유평이나금일중군호를허치아니심은구구소망이아니로소이다첩이작일발히를봄애죽히탈히의홍녕호를짐작호뿐아니라오계동은험디오근일접전은처음이라실로모르고경덕지못호지니첩이임의상공을조차이곳에와호노위디에드러가심을엇지안져보리잇고첩이비록다른경륜이업스오나채직을잡고회하에조차환란을조치할가호는이다도독왈원쉬업슨즉랑패호출아나승패는병가상식라금일싸호를용렬호양도독이쥬장호리니원슈는변되치말라홍랑이불승개연호야도라운지슈유에손야채또도독의군령을밧들어니르거늘보니군스삼천과외손야차는원슈로더부러자고성에잇게호고기외제장제군은금일평명에오계동으로호군호라아이오

소스매또니르려원슈를보고왈금일오계동싸움이적지아니하거늘도독이원슈의병
환을넘려하샤독형하시니구구원슈를소하도소이다원슈와는장군이모르심이
로다창을메고칼을들너장슈를버히며진을충돌함은혼탈이잠간능혼배잇스나정정
지진과당당지법으로문무겸전하야소향무덕함은심기흥혼탈이엇지양도독일인을
당하리오다만취하에제장이업거늘혼탈이병드러조차가지못하니장군은도독을되
서만일급함이잇거든혼탈에게알게하야환란을긋치게하랴소스매응락하고가니
라평명에도독이형군홀시자고성에서오계동가기불과이십리라대군을다섯세에는
화선봉장군되던풍이데일되되고좌익장군동최데이되되고우익장군마달이데삼되
되고우스마소유경아데스되되고도독은중군이되야오계동전에진을철시마군은동
서각을일위일진진을치고수리와보졸은중간에쳐하야동서각을련하야싸쳐형세극
히서어흔지라소스매심중에싱각하되오랑캐풍속이치돌하거늘도독하니만일덕병
이우리진중간을충돌함즉슈미심어저엇지하리오만히진세를그리여원슈씩보내
며득실을무르니라이때도독이진을천후격셔를살에미야동중에쏘니그격셔에왈

皇命

南方

德

正道

詭術

내황명을밧자와남방을덕으로향북밧고져하야정도로싸호고계술로결우지아닐

紅桃王

勝負

지라홍도왕은썰니나와승부를결단하랴

이때탈히궁중에잇다가동문에올나명진을밧라보고왈명원슈십만대군을일조로진
치니이느형세를포장함이라내드름애속이든돈호자는것을조랑치아니하느니내의

병을내야중간을충돌함즉슈미를거두지못하야양단에는호여랑패함을보리라쇼보
살와첩이명진을봄애고치정정하거매착란치아니하니경덕지못할가하느이다언
미필에겨세동중에떠러지니탈히보고대쇼와과인소료에나지아니하도다명원슈는
오활호유장이라정도를말하니내맛당히흔북에싱금하리라하고동문을열고군스륙
철천괴를거느려바로명진을충살하니그형세풍우호흔지라도독이급히슈미를쓸며
북을쳐동서각을합하니슈미상응하야일기원진이됨에진중에싸이여바야호로대경
하야급히만병을흔곳에방진을치고천히창을들고에워싼거슬충돌코져하거늘도독
이브라보니탈히의신장이십여척이오얼골이푸르고고리눈이오범의슈염이라도독
이좌우를보아왈늑능히탈히를취하리오되던풍이도채를들고나가니탈히대노하야
크게소리하며고리눈을부릅뜨고호슈를거스려우회호치호통하니산악이문혀지느
듯던풍의탄물이놀나십여보를물너서니동마제장이일시에창검을들고합력하야치
니탈히조곰도겁함이업서동충셔돌하야괴세더욱흥녕흔지리소스매도독씩고왈탈
히의한악함을만일싱금코저흔즉반드시상하느재만흔지니궁노슈를물너일시에쏟
이가할가하느이다도독이쇼와법법에하얏스되궁구막추라하얏스니이제다만그괴
세를씩거노함이무방하도다소스매왈탈히는범호흔재라합정에는범을노아후환을
씨침이불가하느이다도독이허락흔대즉시슈빅명궁노슈를물너에위싸고쏘니탈히
위험함을보고돌게썩여느려창을들어살을밧으며몸에임의십여살을밧고피흘너싸

에드르나벽력갓치소리하고몸을소사두어접에위싼거슬넘어세번소사진뱃과나매
괴세더욱흥녕흔지라늑감이압홀당소리오도독이인하야대군을모라엄살하니이때
쇼보살이동중만병을거느려탈히를구코저하야급히오다가도독의대군을맞나일장
박전홀치함성은런디를진동하고죽음이되갓흔지라또한탈히중히상하야음을보고
즉시만병을거두어동중에들고동문을닫은대도독이일모함을보고또한군사를돌려
자고성으로올시홀연손야채말을달녀오거늘도독이대경하야연고를무른대야채와
원쉬소스마쳐서잔이잇는이다도독이우문와원쉬오늘은무엇하던고야채와종일신
음하시는중진상동정을물나종일자고되에오르샤남을바라보시며울을불락하시더
이다도독이미쇼하고심중에생각하되내흔번괴롭코저하얏더니급하고어린모음에
엇지럼병치아나리오하야추회하며소스마를향하야그무슴편지임을무른대소스매
왈쇼장이아싸도독의진세를의심하야무렷더니그것을답함이로소이다도독이웃고
퍼보니왈

陣圖

率然陣

常山

其名 率然

진도를보니이진일함은솔연진이라상산에큰비암이잇서기명이솔연이라그머리

合

를친즉쇼리응하고쇼리를친즉머리응하며그허리를친즉슈미일시에응하야서로

合

依倣

脫解

爲人

拔解

陣中

衝突

합하느니이진은이들의방함이라그형세서어흔고로모르느재허리를충돌하다가

랑패하느니다만생각건대탈히위인이발히갓흔즉진중에든후함으로잡지말미를

홀가호노라

도독이보고미쇼하더라대군이자고성에니름애원쉬성문을나맞거늘도독이삼군을
정돈하니이때임의황흔이지나장중에등축이조요흔되도독이짐짓정식무언하고안
졌스니홍원쉬홀도시립하야아미를숙여도화양협에홍흔이무르독아어란듯조으는
듯그림속사름갓치만히섯스니도독이봉안을홀녀자로례시다가참지못하야거
짓장탄왈니무량장하고외유강덕하니엇지하면도호리오하고상상에놓거늘홍랑이
츄파를들어도독의눈치를보며중용문와일진상득실이엇다하니잇가도독이다시
탄왈빅면서성으로병서를넘지못하야다행이소스마를인연하야일기진법을만장에
게비호니일함은솔연진이라언미필에홍랑이고기를숙이고잠간미쇼하거늘도독이
바야호로대쇼하고홍랑의손을잡아좌에안치며왈빅만진중의장슈됨은쉬우나미흔
진중의가장됨은어렵도다내오게동파하기전미타흔괴식을외와랑을종군치말게하
야병을도접할가하얏더니장략이부족하고슈지로청루에노든모음을것잡지못하야
괴식을로출하니비로소세간의영웅렬시업습을알니로다홍랑이새로이붓그러부답
하거늘도독이다시탄와내랑으로동시쇼년이라만리절역에수년풍진을겨금애심식
을적하야쇼창홀곳이업는지라작일지스느일시회룡으로쇼견코저함이라금일진상
의적세를보니나락의류아니라탈히느오히려녕악흔인물이나쇼보살을잠잔보니
장다모다지하야요탄난축하니근심이불쇼할가하노라홍랑이쇼와첩이비록무서하

나 맛당히 쇼보살을 취할지니 상공은 또 한 탈히 취하야 각각 힘을 논함이 었더하니 잇
가 도독이 웃고 허락하더라 이 밤에 도독이 원슈를 잠중에 머므러 왕내랑과 일즉 삼장악
이 잇스나 이는 나락을 파하거 전악 속이라 금일又到 밤을 지내야 고적한 회포를 위로하
리라 하고 손야 차를 불너 분부왈 금야에 군무를 상의 할일이 잇서 원슈야 심후도라 같지
니 막츠를 뷔지 말고 가서 적히라야 채응락하고 도라오며은근히 쇼왕시속남지 총첩을
둔즉 소량 닳히다 되고 다름 닳히 동침한 다함을 내변시러이 보앗더니 었지도 독의 침중
함과 원슈의 단아함으로 작일 풍패 금일 운위 될 줄 알앗스리 오하더라 초시도 독이 금금
을련하야 금슬의 화창한 정화로 고비의 지리한 근심을 위로함애 원슈가 연곤되하야 새
벽됨을 세듯지 못하고 봄조름이 몽롱하거늘 도독이 문져서야 보니 군중루쉬임의 쓴어
지고 셔산의 잔월이 샹중에 조요한 디원쉬비취금을 헤치고 원앙침에 의지하야 옥고흔
살빛은 월하에 령롱하고 구름터럭은 침상에서 령는 디 천식이 막막하고 괴운이 더미하
야 십분어리고 철분연약하리라 도독이 7만히어로문지며 생각하되 又차 잔약흔과
질을 내장슈로 부려 검극을 무릅쓰고 시석을 충돌하니 가위박정한 남자로다 하되 더니 원
슈바야 흐로 잠을 세야 황망이니러 전포를 남거늘 도독왕내랑의 괴질을 봄애 내괴운이
도로 허상흔지라 금일 싸움애 랑은 또 한 출전치 말고 병을 도섭하라 원슈 또 한 스스로
각건대 신괴 심히 불평하야 전상에 나가지 못할 듯함애 함쇼부답하니 도독왕내오게 동
을 봄애 디형이 늦고 압히 큰물이 잇스니 금일 처세치 못하죽 명일은 물을 다리혀 동중

에 붓고 저하는니 그 계피 엿다 하노원쉬왈 이논디 형을 쯔세히 보신후 하쇼셔 도독이 또
손야 차와 원슈는 성중에 두고 대군을 거느려 오 계동전에 니르러 진을 칠시 도독이 소사
마를 보아 왈 금일 오 계동에 피이 혼피운이 자욱하니 반다시 쇼보살이 무숨요술을 힘코
저함이 라 무곡진을 쳐지희고 동정을 보리라 소스매령령 하고 물너가니라 원쉬도독의
대군을 보내고 죽시자고 디에 올나 오 계동지음을 브라보다 가 놀나 급히 장중에 도라와
손야 차를 불너 왈 금일 셔풍이 음령하니 도독의 호빅구를 보낼지라 랑은 썰니 가라 하고
홍보에 썩것을 주며 왈 이 중에 갓옷과 쇼찰이 드럿스니 부디 도독씩 뵈고 드리라 야채 즉
시 보를 가지고 물을 달녀 오 계동으로 가니라 이 때 도독이 무곡진을 치고 도전하니 탈히
동군을 여지 안코 적연이 동정이 엿더니 홀연 손야채 니르러 호빅구를 드리니 도독이 피
이 녀여 왈 금일 일괴 온화 하고 침지 아니 하거늘 이 거슨 엿지 보낸고 손야채 왈 그 중에 쇼
찰이 잇다 하더이다 도독이 차자 펴보니 쇼찰에 왈

大軍 出城 鷓鴣臺 東南間 大軍이 출성호은후자고딕에올나동남간을봄애괴이훈괴운이그득호니병서에운

玄黑氣之下되必有妖術후고지하에필유요술이라하니
 小善薩쇼보살의요술이비상妖術함은첩의드른배라만일
 妾非常

마왕을부린즉 3장제어하기어려울지라첩이일즉흔진법을비화일홈은강마진이

라 제석^{帝釋}이 가왕^{魔王}을 사로잡^{陣法}은 진법^{陣法}이니
 쇼보살^{小菩薩}이 마왕^{魔王}을 부리^{陣法}거 든 이 진법^{陣法}을 쓰^犯신 즉 범^犯

치못할가호는이다
小菩薩
 쇼보살의 일흔이불가
佛家
 에 갓갑고 마왕은 불가
魔王 佛家
 의 신장이라 연고로
神將

첩의념려^{念慮}는배라루설^{漏泄}을저허^{狐白裘}야호빅구를보내는이다

도독이남필에또적게봉헌거시잇거늘보니이에진도라도독이손야차를보아왈원슈
씨도라가보라금일일기비록화창하나오게동바람이음령하더니호빅구를보내야
다행하다하손야채즉시도와보하니원슈또헌덤두미쇼하더라도독이아차를보
내고척상을의지하야진도를퍼보다니홀연함성이대작하며쇼보살이도전하다하니
아지못케라승뷔엇지된고하회를보라

데이십삼회

보살이작범하야마왕을놀이고

홍랑이단괴로도독을구원하다

菩薩作法降魔王
紅娘單騎救都督

각설탈히패하야동중에드러가쇼보살과서로되하야명병과홀방략을상의홀시쇼보
살이령쇼왈티왕이평일용뎡을포장하시더니이제빅면서성을당치못하사더곳치랑
패하시니첩이맛당히지조를시험하야대왕의원슈를갑흐리이다하고만병을거느려
동문을열고진세를배푸러도전하니도독이진상에서브라봄애쇼보살이며리에붉은
슈건을쓰고몸에오식옷을납고우슈에장검을들고좌슈에방울을흔들며나오니혜힐
흔리상과요사흔리되진짓만릭디방의동인홀조식이라쇼보살이홀연우슈의칼을들
어공중을크르치며좌슈의방울을흔들며오식구름이진상을덥쳐오며무수흔신장이

마왕을모라오니괴이흔형용과흔영흔거동이혹코기리를두고혹호표를멍에하야삼
십륙기런강성과철십이기디살성이야차귀를거느려명진을출살하니그중일기마왕
이스즈를두고황금갑을납고좌우엇기에일월이듯앗스며머리에철성을니고가슴에
이십팔쉬버려광치십방을빛최이고괴운이사름에게쏘이며감히압홀당하야나갈재
업는지라도독이급히진세를변하야강마진을철시오빅고는북방감륙위를응하야피
발선죽고옴남소로소사리사리마하열두즈를외오게하고일천고는창을늘고동
남방을향하야서고일천고는칼을들고서남방을향하야서고일천고는북을치며정을
올녀스면으로돌아다니라하니제장군줄이비록곡절을모르나다만지휘되로하니라
대개불법이황당하야그러하스스심팔만대장경이불과일기심법이라부쳐는모음이
오마왕은욕심이니모음을딩홀죽욕심이살아지내고로마왕을제어하기붓쳐박게업
느니불가의청정적멸을말함은모음과욕심을닐음이라모음은물고욕심은불고흐
니북방감륙위를응함은슈극화하야욕화를극하고심슈를성함이오진언을념함은모
음을거두어전일케함이니심쉬안정홀죽이닐은청정이며욕해쇼멸홀죽이닐은적멸
이라홍낭의강마진이비록서어하나북방감륙위를응하야심쉬청정하니마왕의욕해
웃지쇼멸치아니리오츠시마왕이야차귀를모라오다가명진을브라봄애오빅라한과
이천금강신이창검을집고섯스니전후좌우에런라디망이중중렷렷하야드러갈길이
업는지라마왕의광치스스로살아저봄눈슬듯하야잔곳이업거늘도독이대군을호령

하야 만진을식살하니 쇼보살이 대경하야 즉시 만병을 거두어 동중으로 드러가 달히를
보고 탄왈 명원슈의 장략이 출중호썸아니라 도술이 신룡하니 아즉 동문을 닷고 괴들을
보아 방략이 잇스리라 하더니 내명일동전의 물을자아 동중에 붓고 저하노니 장군은 동마량장
을 닷고 나지 아니하니 내명일동전의 물을자아 동중에 붓고 저하노니 장군은 동마량장
을 닷고 오계동북편에 가다 형을 켜세이 보고 오라스매 응락하고 량장을 거느려가니
라 달히쇼보살을 더하야 명병이 덕홀게 교들의 룬하더니 척후만병이 보왈 지금명장삼
인이 본동북편에와 회회하며 디형을 엿보느이다 하거늘 달히대로 왈 내 갑옷과 물을가
져오라 명장의 슈급을 취하야 오리라 쇼보살이 쇼왈 대왕은 식로하쇼셔 디형을 보라온
장쉬불과 명진제장이라 그 머리를 취하야 무엇하리오 첩은 드르니 지혜잇는 자는 괴들
을 잘본다 하니 이제명장이 디형을 엿봄은 반드시 금야에 성을 겁박고 저함이라 츠시를
인연하야 계교를 쓸지니 대왕은 금야 초혼에 오천괴를 거느려 오계동북편에 미복하야
잇고 첩은 오천괴를 거느려 북편에 미복하얏다가 명병이 성을 겁박하거든 내다라치되
동중에 늙은 군사와 제장을 약속하야 동구에 함성이 나려나거든 이제내다라치응외
합호즉명원슈를 싣금홀가하느이다 달히 칭찬하고 계교되로 형하나라이 때소스매 동
마량장과 디형을 보고 도독씩 회보하니 삼인의 말이 잠간 달나 분명치 못함을 보고 도독
알일을 경솔이 못하리니 금야 월하에 내 천하가 보리라 하고 소스마를 장중에 두고 시야
삼경에 도독이 퇴련 동초마 달삼장과 휘하 갑스 일백명을 다리고 만히 오계동북편

에니 르러 봄에 언덕이 높고 동중디형이느저 물나갈 길이었는지라 도독이 대회하야 량
구히 돌나보고 다시 월하에 도라올시 홀연 함성이 대작하며 오계동북편으로 쇼보살이
오천괴를 거느려 길을 막고 동편으로 달히또호오천괴를 거느려 좌우 협공하며 다시 동
중만병이 일제이 돌출하니 수만만병이 괴세를 내야 도독을 털롱긋치에 위싸니 도독이
갑스 백명으로 방진을치고 동마량장과 퇴련풍이 분연이나서 진력충돌하니 만병이 임
의들을 덥혀 월하에 내라보니 그다 괴를 료량치 못홀지라 동을 헤침애 서를 에위싸고 서
를 헤침애 남을 에위싸 중중덥덥하야 쓸을 길이 업스니 함성은 띠디를 흔들고 시석은 비
긋치며 러지거늘 퇴련풍이 도채를 두루며 도독씩고 완일이 급하니 쇼장이 맛당히 죽거
를 다하야 만진을 헤치고 길을 열지니 도독은 단괴로 뒤를 켜르쇼셔 도독이 쇼왈 내 남방
에 온후로 홀번 패함이 업더니 금일 잠간 술이 허나 섰다가 이긋치곤 혼배되니 추억련쉬
라 엇지시 석을 무릅쓰고 필마로도 망하야 욱되고 구차함을 하리오 다만 급흔 화를 방비
하야 대군이 나르려 구함을 기도림이가 하다하하고 도독이 천이 물곳비를 거느려 잡고 섰
스니 동쇼마달이 창을 잡아드러오는 만병과 만장을 십여인을 버혀도 독을 호위하야 섰
더니 진밧기 요란하며 함성이 대작하고 만병이 더욱 든든히 에위싸드러오니 원리소스
매 도독의 곤함을 알고 대군을 모라 충돌함이라 쇼보살이 군스를 지휘하야 도독을 점점
급히 치니 형세 정히 창황하더라 차설홍량이 자고성에 잇서 신고되곤하야 장중에 잠간
조으더니 홀연 일쌍자괴 창밧게느라가며 울거늘 원쉬잠을 깨야 손야 차를 불너 문왈이

제어는 때나 되노야 채왈 거의 이경이나 되니 다원쉬왈 밤이 깊혔거늘 도독이 엿지회
화치 아니시느고 나와 월하에 비회하며 연상을 우러러 보니 연의 청랑하고 중성이 되락
흔디 일기대성이 광채희미하야 후괴에 싸이엿거늘 조제보니 이에 문창성이 다원쉬대
경왈 도독이 아니오시고 주성이 겁기에 싸엿스니 반드시 무숨연피잇슴이로다 하고 혼
패를 잇으니 이에 중련건패라 원쉬악연실식왈 건패 구회동하얏스니 그말에 왈 상구는
항룡이니 유회라 하얏스니 군중에 무숨소루 혼일이 잇서 크게 뒤우침이 잇슬거시오룡
전은 기되궁애라 하얏스니 그곤함이 불쇼홀지라 엿지 친이가 보지아니리오 하고 손야
차를 불너 전포와 쌍검을 썰니 가져오라 하야 일변물을 두며 야차를 성중에 두고 갑스빅
명을 거느려 망망이 오계동을 향하야 가더니 홀연 풍편에 함성이 터디를 흔들거늘 원쉬
더욱 착급하야 물을 노아 경각간에 오계동을 바라보니 일기물튼 군식 급히 달녀마조오
다가 원슈를 보고 천식이 미명하야 고왈 도독이 만진에 싸이샤 그엇지 되심을 모르느이
다원쉬정신이 비월하야 다시 못지 못하코 물을 노아 진전에 다다르니 소스매 바야흐로
창을 들고 대군을 모라 만진을 총살하야 어우러져 대전하다가 멀니 바라보고 웨여왈 원
슈는 잠간 물을 잡으라 원쉬물을 잡고 문왈 도독이 어더게 시노소스매 왈 진중에 싸이샤
게신 곳을 모르느이다 원쉬다시 부답하코 물을 노아 진중에 돌입하니 억만만병이 편야
하야 바다를 일헛스니 묘연 혼도독일신이 어느곳에 잇는줄알니 오다만 쌍검을 돌너만
병둔취 혼곳을 바라보고 만장만졸을 맞나느니 도로 못지아니 하코 버혀갈 날이니 르느곳

에다 만안기호 혼괴운이 날며 진중이 요란하거늘 쇼보살이 대로하야 일변만장을 버혀
군중을 진딩코저하나 무가내하란디 업노칼이 동편에 번득이며 만장의 머리 떠러지
고 서편에 지나가며 만졸의 머리 떠러져 남을 겨오진딩 혼죽복이 또 요란하코 압홀거오
방비 혼죽되다시 창황하야 그표 혼홀은 바람고고 색름은 번개고호여 섬섬 혼물그림지
지나가며 분분 혼만병의 머리일시에 업서지니 그왕리 종적을 측량치 못할지라 쇼보살
이 또 방략이 업서진중에 분부하야 독혼살노써어즈러이 쏘라하니 만장이 일시에 활을
다리여동에 감을 보고 동으로 쏜죽임의 서에잇고 남에 감을 보고 남을 쏜죽임의 북에잇
서남북에 홀왕홀리하야 맞지아니하코 공연 혼만병이 마져죽은 재되호니 쇼보살이
대경왕이 장슈를 살녀둔죽비록역만대군이 잇스나 쓸디 업슬지라 양도독은 오히려 들
재니이 장슈를 에워싸잡으리라 혼대만병이 양도독을 빙여 겹싸앗다가 일시에 풀어서
홍원슈를 조차에 위싸잡니 초시도독이 삼장과 일빅갑스로 더브러히심에 곤하야 경륜이
업더니 홀연에 위싼군식일시에 남함하며 진을 움겨서 남방을 에워싸니 도독이 곡절을
몰나 삼장과 갑스를 거두어나올시 무수 혼만병의 머리진중에 편만하야 물굽에 뵈히거
늘도독이의 아하더니 오다가 소스마를 맞나대군이 니름애도독이 바야흐로 위디에
버셔느니라 소스매도독씩문왈 장졸의 상 혼재업느니 잇가도독왈 다형이 일인도 상함
이 업노라 소스매왈 원슈는 어더가니 잇가도독이 대경왕 원쉬 엿진중에 오노소스매
왈 아싸필마단기로도독을 차자진중에 드러가느것만보니이다도독이 듯고 악연함루

常山、趙子龍、
陽、長坂、當

왁훗훗탈이죽엇도다탈히의군스느련하막강지병이라또호그수를알길이업스니호
 탈이비록효용하나조질이약하고나히어리니나를찾다가보지못호죽반드시홀노사
 라도라오지아니호리라다시탄왁훗탈이나를지기로알아쥬년풍진에환란을긋치호
 다가금일나를위호야위디에빠져스싱을미분호니내엇지참아브리고가리오고언에
 호앗스되국스우지어든국스보지라호앗스니내평성에창대를잡아보지아녜스나약
 잔드른배잇느니금일에만일훗탈을찾지못호죽내도라가지아니리라호고개연이리
 화창을들고물을돌녀만진을다시충돌코저호거늘제장이일시에물을잡고잔왁쇼장
 등이비록무용호나각각군령을두고만진을헤쳐원슈를차올지니도독은참으쇼셔
 츠시도독이년쇼강장지기로비록테똥을도라보아몸을경솔이아니호나평성총이호
 논홍랑이조기로인연호야스디에드러감을보고잔잉호모음이빠바아질뿐아니라스
 싱환란의지그지를엇지저브리리오용뎡과의괴일시에불긋치닐때심만만병이안
 하의초개긋흔지라허리에찬칼을빠혀곳비를썩코바로만진에돌입호니되련풍동초
 마달이각각창을들고죽기로쓰를식도독이리화창을두루며진을충돌호야부인디경
 못호니삼장이심중에대경호야바야호로도독의용력이또호과인함을탄복호리라이
 때홍랑이혈혈단신으로진중을편답호며도독을차즈나보지못호애심치황급호야루
 쉬압홀그리외다만황황망조히도라다니니쇼보살이진상에서브리라보다가좌우를보
 며왁내얼즉상산조조룡이당양장관에회회함을드릿스나더장슈의밋지못호리니내

이장슈를잡지못호리로다호고침음량구에왁그장슈의거동을봄애동셔남북에망망
 급급호야무엇을찾는모양이라이느반드시명도독의휘하편장으로도독을찾고저함
 이니내이제죽은만병의머리를달아진상에멀니되며도독의불형함을말호죽제반드
 시괴운이저상호야잡기쉬울가호노라이에일기만병의머리를취호야깃대에달고놓
 히웨여왁더진상에회회호는장슈는헛도이슈고치말라네도독의머리임의여괴잇스
 니보라호거늘홍랑이비록눈이붉으나월하에놓히달난머리를엇지분간호리오다만
 양도독의개세지공과홍랑의충명지감으로평성전정을밋은배거울긋호니엇지간계
 에속으리오마는사름이창황호죽모음이동호고모음이동호죽팔공산효목도오히려
 의심함이잇느니허물며홍랑의도독을향호야지극호모음이리오진상에웨는소리를
 듯고처음은머리에벽력이느린듯정신이아득호고나중은홍중에불이니러나매스
 싱이초개긋호니이에쌍검을들고닐녀왁쌍검아네나를조차일편지심이빠로빗최이
 니금일훗탈의스싱을판단할지라네또호지극호보비로신령이잇슬지니나를돕고저
 호거든정연이소리호라언미필에량기부용검이일시에정연이울거늘홍랑이다시설
 화마를경계왁네비록증승이나련디잔준물이라만일쥬인을돕고저홀진대전력호야
 스싱을긋치함이오날잇스리라설화매검을치며같이호소리를지르거늘홍랑이이에
 칼을들고물을채쳐바루진상을향호야올나가며량슈쌍검을번개긋치두루니츠시쇼
 보살이탈히와진을림호야군스를지휘호시모든만장이좌우에응위호고창검이별것

듯하얏더니 홀연 청연한 칼소리와 난디업는 물발자취 바람긋치드러오니 다만 홀조각
눈빛과 홀줄기 푸른 안기월하에 섬홀흔지라 좌위 창황하야 일제이 창검을 빼쳐어즈러
이치라하니 숨숨한 풍이 살긋치내가며 수기 만장의 머리싸에 떠러지거늘 달히대
경하야 크게 소리하며 쇼보살을 넘히치고 몸을 소사도 망하니 홍랑이 조차형세 급함에
보살이 일변다라나며 빌어왈 장군은 엇지이긋치 펴복하느뇨 우리 일즉이 도독을 해침
이업고 잠간 장군을 속임이라 장군은 보슈코져 말으쇼셔 홍랑이 더욱 통흔하야 답지아
니하고 칼을 돌려치고저한대 달히보살을 마하에더지고 몸을 돌려홍랑을 마져대전수
합에 홍랑의 검술을 더당하리오바야흐로 몸을 빠져달고저하더니 만장십여인과 일터
만병이 다시 홍랑을 에워싸고 일진일퇴하며 흑좌흑우하야 갈아들며 홍랑을 더덕하니
일기홍랑이 비록 만인을 당할검술이잇스나 비록 만군중에 단괴로 회형하야 종야진력흔
중모든 만장파허다 만병이 탈히를위하야 죽기로 싸호니 엇지위경이아니리오 홀연진
중이요란하며 월하에 희희비라보니 일위쇼년 장군이 창을 두루며 몸을 달녀 만진을
춤돌하니 괴세당당하고 위풍이 숙숙함에 출중흔거동과 비범흔 풍채 창히신룡이 물결
을 박치고 심산땡화바람을 불으는 듯일진풍에 티끌이 아니라며 그 장슈의 든물이 크게
소리하고 지나가니 홍랑이 대경왈이 엇지우리 상공의 득신물소리아나리오 급히물을
달녀당전하야보니 비록어두운중이나 엇지양도독을 모르리오마전에 소리하야왈도
독은 어더로가시느니잇가 홍흔달이여괴잇는이다도독이경왈 장군을 죽은가하엿더

니 엇지그저이긋치다니느뇨 홍랑왈정히 상공을 차좁이라 이제 탈히와쇼보살이 비록
동중으로드러갔스나 늙은 만장만줄이오히려진을거두지아니하얏스오니 밧비도라
가스이다하고 물을련하야나올시머리업는죽음이싸에살넋고 창황흔만병이 무단이
서로놀나 칼을들고 물든장슈를맞는죽담이떠러지고괴운이저상하야머리를싸고도
망하니뢰던풍동초마달이보고도로혀승승흔괴석이잇서무수이즈치며나오니도독
이미쇼하더라본진에도와도독과원슈장전에물을느일시홍원슈홀연엿더져흔절
하니도독이대경하야급히촉불을비쳐여봄에홍랑전포에혈흔이림리하거늘더욱놀
나혹상함이잇는가도독이친이홍랑의전포를글으고몸을즈세보니다만쥬한이전신
에긋득하고별노상치는아닌지라아시오또물맛흔군치보왈원슈득신물과안장에혈
흔이점점하다니도독이일변악을권하며일변축은하야홍랑을어루문지며잔잉흔
모음을진명치못하더니반향이진내후홍랑이정신을츠려니러안즈며왈상공이천금
지구를가바야이하샤미양위디에드러가심을무단이하시니이는다첩의죄라처음곤
함심은국스를위하심이니첩이감히의론치못하오나두번진중에드러오심은첩이그
유희그불가함을아오니너필종부라첩의스성은당연이상공을조차긋치하려니와상
공의안위엇지첩을조치고저하시느니잇가지식업는너즈는혹감격난망하려니와유
식조로본죽도로혀첩을쇼하야그도리로군즈를섬기지못하고일시지정으로미혹
케하다하리니이느상공이첩을스랑하심이아니오또흔첩이상공을바라던배아니로

소이다도독이키용왕의말은금석지언이라내명심하려니와내왕을지괴로알고부
 부로되접지아니느니엇지급난지풍이업스리오그러나나노오히려스랑함이잇거니
 와랑은미양렬협지풍이잇서스성을불고하니또호경계홀배라후후는삼갈지어다홍
 랑이샤례하더라홍랑이다시쌍검을어루문저도독씩고왕요마만대홍호소리진상
 에웨여놀나이지금사지모음이셔늘고골결이셀니여통호호음을반드시풀고
 말지니첩이금야동중에물을티여보살과달히를성금코져하느이다도독왕슈거를밋
 쳐준비치못하얏스니엇지하리오홍랑왕첩이수일자고성에한가이잇서임의준비하
 야두엇스니근심마르쇼셔하고마달을차고성에보내야가져오라하니라이윽고마달
 이십여척슈거를슈운하야오니제되정묘하야심상할슈게아니라대강그제도를보니
 頸長 六尺 六坎水 尾長 十二尺 九寸 六分 日月消長之數
 經一緯三 十二時 第一層 半
 취함이오동굴기경일위삼이니십이시를취함이오데일층은반을씩거물을인도하
 子時夜半 天一生水 三百六十
 게하니조시야반에던일성슈를취함이오삼십륙십구뿔를게하니하늘삼십륙십
 度 도를취함이오두번들어다섯층을올니니오연지수를취함이오연호즉장이스십구
 尺 大衍用數 合 四尺四寸 四時 龍頭魚尾 龜
 척이니대연용수를응함이오합호즉스척스촌이니스시를응함이오룡두어미오귀
 背鯨腹 比鯨복이더라

도독이보고심중에탄왕랑의슈거는제갈부후의목우류마에양두치아니라로다하
 더라원슈군스스빅명을거느려십척슈거에군스이십명씩분비하야일제이틀매장경
 이빅천을마시는듯은하슈구련에떠러지는듯우뢰와흔물소리와안기우흔물괴운이
 반공에요란하야스무구뿔물결이무지기를일워오게동에떠러지니원슈즉시본진에
 도라와되련풍으로이천괴를거느려오게동북문밖게미복하고동초로이천괴를거느
 려오게동서문밖게미복하고마달로이천괴를거느려오게동동문밖게미복하야달하
 의가는길을막게하고소스마로일천괴를거느려슈거를간검하라호후도독과원슈대
 군을거느려오게동남문밖게결진하야동중동정을기드리니라차설탈히와보살이동
 중에드러가제장군졸을덤고하니만여명만병이절반이나업더라탈히칼을안고제장
 을보아왕명도독과원슈는불과져나느니하라과인이명일맛다히단괴로출전하야
 조웅을호번결하리라쇼보살이말녀왕금야쌍검쓰든장슈는천고무쌍호명장이라륙
 전으로당치못할지니명일슈군을도발하야슈전으로다시결함이가할가하느이다탈
 히왕부인의게피묘하나슈전홀제귀모도자고성에잇스니엇지하리오쇼보살이침을
 왕대룡동슈군이오히려만여명이오대룡강전선이빅여척이니엇지되디명병을근심
 하리오언미필에만장이화망이와고왕대왕은셀니몸을니러급호화를피하쇼셔하느
 이지못게라무숨꼭절인고하회를보라

데이십소회

남편도덕을평당하고도독이런병을돌니고

도관에드러가원쉬옥인을놀내다

平南賊都督回天兵
入道觀元帥驚玉人

각설랄히급보를듯고대경야야보살과장티에올나보라보니난디업노물줄기공중에
싹아져하늘이러지고바다이모른듯경각간에오게동이화야일기슈국이되니랄히
대경왕이노반드시명병이슈거를들어물을디임이라동중에큰슈되업고물줄기이
흐니만일조금잇스죽비록도망코져하나엇지엇으리오츠시를득복문을열고다라남
이올도다보살왕불가하니명병이반드시물을다이고곳곳이미복야가는길을막을
거시니대로를바리고성을넘어각각명을보전함이가할가하느이다랄히을히녀여죽
시보살과티에느려마필군졸을도다보지못하고단병을지니고재벽에그만히월성하
야거려도망할식수기만장이창을집고뒤를싸라대룡동으로드러가니라츠시도독과
원쉬남문을직히여동정을기드리더니남문으로물이넘어누른물결이창일하거늘원
쉬도독싸고왕동중물이임의문을넘으나랄히동정이업스니이는다른길로도망함이
라하고슈거를파흔후성상에올나동중을굽어보니망망대허에계편마필이부평초
치뎛거늘원쉬란왕넋적에제갈무휘등갑군을불지르고감슈함을탄식하얏더니금일
홍흔달이오게동을슈침하야성물을이긋치살해하나엇지복에손상치아니리오하더

라아시오동마량장과뢰런풍이군스를거두어도라오니하늘이붉은지라도독왕오게
동은임의슈국이되얏스니별노정돈할배업고다시자고성으로가곳경륜하리라하
고제장삼군을거두어자고성에도라와즉시제장중령리훈자일인을보내여탈히의종
적을탐지하니회보왕탈히와보살이대룡동에웅거하니대룡동은상계삼심리라동전
에큰강이잇서일흐은대룡강이오강두에빅여척전선이잇서선상에기를뿔고탈히와
쇼보살이슈군을발흔다하거늘도독이원슈를보며왕과연소료에버셔나지아니하도
다오늘일은장군이나라를디신하야슈군을동독하고편의종스하라원쉬슈명하고즉시
동쇼마달을불니분부왕장군은일천기를거느려강두에올나가며왕리선척을대쇼다
과를계교치말고탈취하야오라또뢰런풍을불니분부왕장군은삼천병을거느려외에
올나적목을버히되호부를가리지말고다만무수이구취하야강두에싸호라삼장이령
령하고가니또소스마를불니왕군중에선척이업스니내별노수심척전선을문들고저
하나제되지속비와다르니장인을다리고자검하야문들라하고제도를내여주니그형
용이자라又흔고로일흐은타션이라왕리지속이자라와又호여임의로하며각양병과
와군스십명을용랍게하나라소스매제도를의지하야시역홀식원쉬그쓰는법을일일
이그르치니제장이막불탄복하더라익일동마량장이수심척이선과십여척히랑션을
탈취하야오니원쉬손야차털목랍을그만히불니선척을주며비밀이약속하야보낸후
뢰런풍이와적목을강두에싸함을고하니원쉬다시일천명군스와십여명장인을주어

지목을 다듬어 써를 모으라 하니라 차설이 때 탈히와 쇼보살이 대룡강강상에 슈군을 스
습할시 슈군 추장이 고왈 슈전하느병장귀모다 차고성에잇고 또 혼선척이 부축하야 진
세를 일을 길어업다 하니 쇼보살이 정히 근심하더니 홀연 슈상으로 수기어 뷔수척어 선
을 저어느려오거늘 쇼보살이 만병으로 선두에서 비를 부르니 그어 뷔되 답지안코 비를
돌려다라나거늘 쇼보살이 대로하야 일척 경선을 풀어 조차가 잡아오라 하야 크게 꾸지
저왕네 엿더 혼어 부로내 부름을 거역하더니 뷔왕쇼디는 희상어옹이라 수일 전차고성
압히서량귀장군을 만나 수십척히 선이오다가 십여척을 빼앗기여 겁이 미진하야 그
리하니 이다 쇼보살이 대희왕그러할진대기여 십여척은 어딴잇는뇨 어 뷔왕 슈상에 잇
서바람을기드리고 쇼디는 청선을 조차이곳에니르니 이다 쇼보살이 곳만 장수인파군
스빅명을 보내야 그 비를 끌어오라 하니 아이오만장이 선척을 무수이 거느려니르니 선
상의 어 뷔독사의를 남고 작살을 들었스니 열골이 검고 더러이 누르러 못지 아니하도
히상사람이라 쇼보살이 대희왕네 반드시만 중빅성이라 무비내군시니 군중에잇서 비
를 지으라 그 중얼골검은 어 뷔혼연왕쇼디희상에 청장하야 물속에 출입함을 평디긋치
하오니 대왕이 만일 휘하에 쓰실진대 힘을 다할가 하느니 이다 쇼보살이 더욱 대희왕네 슈
중에 능히 출입할진대 지조를 구경코저하노라 그어 뷔작살을 들고 물속에 뛰여 드려 고
래긋치며 뛰며 물결을 충돌하야 평디와 다름이 업거늘 모든 만장파쇼보살이 막불칭찬
하코하야 금전선을 보게하니라 쇼보살이 슈군을 정돈하코 명진에도 전하니 흥원슈소

스마를 군스이 천명을 주어 타선을 영거하야 여초하라 하코 동초마달을 각각 삼천
귀를 주어 여초여초하라 혼후기여제장과 대군을 거느려 써를 두고 역류하야 대룡강으
로 올라갈식 이때는 스월망간이라 남풍이련일대 작하니 탈히와 쇼보살이 돛을 놓히 달
고 풍세를 따라 북을 치며 혼군하야 중류에니르러 어선에 난디 업는 불이니러나며 량귀
어 뷔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엽어 선을 썰니저어 명진으로 다라나니 원리 열골검은 어 부
논손야 채오그하나는 열목탑이라 원슈의 명을 받아 화약과 염초를 선중에 금초앗다가
포향을 응하야 총화하코 다라남이라 급흔 불뿔이 풍세를 조차 비여척전선에 경각간변
지니 탈히분연히 창을 들고 화염을 무릅쓰고 일척전선을 빼혀내야 쇼보살과 수기만장
으로 비에 올라 언덕을 바라보고 닷더니 홀연 명진에 북소리 진동하며 십여척 타선이 강
상에 떠오니 그 열기바람긋고 형용이 괴하야 입을 혼번버림에 벽력긋흔포향과 번
개긋흔 열환이 곳중에느려져 탈히의 비전을 침애비십여보를 물너나며 그 타선은 슈중
으로 드러가고 다시 일기 타선이 슈상에 또 소사임을 버림에 포향과 열환이런디 진동하
야 수십척 타선이 차례로 갈아들며 반향을 작오하니 비록 탈히의 흥녕함과 쇼보살의 다
모함으로도 더당할방략이 업는지라 비전어바아지고 돛대씩거져 형세 위급하더니 수
십보밖에 또 일기 타선이 머리를 숙이고 슈중으로 드러가거늘 쇼보살이 밋쳐 피치 못하
야 슈식간에 타선이 임의 탈히의 비압히드러와 머리를 들고 물우에 소스며 탈히의 비를
써니 고흔 번근 두침애비 뒤집히며 탈히와 쇼보살이 일시 슈중에 빠지니 탈히본디 물에

니은재라쇼보살을업고슈상에소슴애일기만장이일엽쇼션을급히저어구하더니또
일기다선이머리를숙이고드러오니쇼보살이급함을보고요술을헛코저하야손을드
러스방을그치며전언을렘하더니밋처작법지못하야그라선이드러와탈히의비를드
니고십여보를닷다가근두쳐슈중으로드러가니비뒤집히여탈히와보살이또슈중에
빠진대만진에전선이다불붓고대군이절반이나슈화에죽은지라남은만병과약간만
장이정신을슈습하야십여척불붓고남은비를저어탈히와보살을구하야남을보라보
고다라나거늘원쉬대군을동독하야뼈를저어대강을덥히시살하더니홀연슈상을보
라봄에무수흔히랑선이슈풍에돛을달고북을올리며마조오거늘원쉬대경왕이엇지
탈히의구병이아니하더니선두의일원쇼년장군이슈중에쌍창을들고나서며웨여
왈패호도적은닷지말라대명원슈의일지군매여괴잇스니셀니항복하라탈히쇼보살
을보며왈과인이이길로가히상제국에구원을청할가하얏더니의외또병이길을막
으니우리엇지되덕하리오셀니륙디에느려경륜하리라하고비를급히저어갓가온언
덕에올나쇼보살과거러대룡동을향하야다라나니라츠시슈상으로느러오든비는바
로명진압히다다랏스니쌍창은장쉬창을들고읍왕원슈는별리만복하이니잇가홍원
쉬즈세보니이에일지련이라원쉬일변반기며놀나비를갓가다이고집쉬왕렬목동
전에길을논화장군은고국으로향하고복은남으로오니평슈중적이다시이곳치맛남
을뜻하지못흔배로다일지련이쇼왕첩의원슈의지성하신은덕을납스와엇지초초수

어로길이고별하리오정이오날과약호고로잠잔취하를떠남이로소이다원쉬일지
련의손을잇글고도독씩되오니도독이또흔반겨왕장군이국가를위하야탈히의도망
하느길을식살하니그공이불쇼하도다일지련이츄파를홀너도독을자로보며새로이
슈습하야홍원슈를향하야왕첩은일기녀지라무슴국가를위하야공을말하리오이길
은실로첩의부왕이진력하야원슈의은덕을도보코저함으로이다언미필에축융대
왕이또느러도독과원슈를보고왕과인이향일렬목동전에서바로종군코저하니심
중에싱각건대홍도국지방이광활하야남으로바다를인연하야벽여부락이잇스니이
를평당치못흔죽후환이흔치지아니할지라과인이녀를다리고히상으로쇼슈류하야
오며임의다멸하얏스니도독의근심을덜가하느이다도독이대희하야치사함을마지
아니하더라원쉬축융을되하야왕대왕이던조를위하야이곳치진충하니이느국가의
복이라다만탈히와쇼보살을잡지못하얏스니불쇼흔근심이라대왕이이번길에제장
과군졸을얼마나거느려오시니잇가축융왕과인의슈하정병칠천과주돌동렬목홀가
달삼장을다려오니이다홍원쉬대희하야도독씩고왕쇼장이임의동마량장을보내야
탈히의다라나느길을막앗스니밤비대군을모라뒤를엄살함이가할가하느이다도독
이즉시대군을거느려륙디에올나바로대룡동을향하야호호탕탕이행군하니라차설
탈히와쇼보살이거러언덕에오름에패호만병이츠츠모히고수기만병이물끄러즈
괴들물을탈히와보살을타이고대룡동으로가라하더니홀연보라보니동문에괴를뜻

星宿海

고일원장군이 크게 쉬지저와나는대명좌익장군동최라대룡동을임의취하얏스니탈
히논어디로갈나하노쇼셀니항복하라탈히보살을보아와우리군서업고또동학을일
엇스니방략이업는지라맛당히남으로성슈히를건너남에게의탁하야다시보슈할방
략을도모하리라하고쇼보살과만장을다리고남을향하야가더니홀연함성이대작하
며일원장군이길을막아와대명우익장군마달이여기잇서기드린저오래니탈히와쇼
보살은셀니와내칼을밧으라하거늘탈히대노하야진력하야수합을싸호더니홀연등
뒤에포향이니러나며고각이현현하고정괴폐공하야도독의대군이니르거늘탈히황
망이문을싸혀닫고저하더니빅만대군이임의렬룡고치에위싸고급히치는지라탈히
빅여명만병으로방진을쳐쇼보살을호위케하고천히창을들고분연이나서며와내이
제하늘이돕지아니샤이곳에곤하니호변명도독과천이싸화조웅을결단코저하노라
축융대왕이칼을들고나가며척왕도독이황명을밧조와삼군을동독하시니엇지무도
흔오랑캐와힘을다도리오과인은남방축융대왕이라내머리를취코저와스니셀니나
오라탈히대쇼왈축융등은남방부용지국이라내불과쇼국잔왕으로린국지의를모르
고이곳치무레하노다축융이쇼왈인심을엇은즉덕국도화목할거시오런도를모른즉
린국도비반하노니과인이린국에쳐하야엇지내죄를듯지못하얏스리오부귀를담하
야네아비를찬탈하노이니논류괴를모름이오나라를다스림에힘을승상하고인의를법
밧지아니하야교지이남이금슈의굴혈이되게하노이는풍속을괴란함이내이제너

를버혀홍도국백성을징계하고남방의슈치를셋게하라탈히대노하야서로마져빅
여합을싸홀시축융의능특힘은범고치뒤늘며탈히의홍포함은곰고치다라드러산악
이문혀지고던디를흔드는듯반향을박전하노도독과원슈비라보고와탈히의괴세일
양홍악하노그저잡지못할지라제장삼군이합력하야치게하라호대좌편의되려풍손
야차동초마달과우편의슈돌동협목홀가달이군스를모라북을치며일제이내다라창
검이비발치듯에위싸고침에달히십여곳창을맛고바야호로락마하니제군이일시에
다라드러결박하야본진으로도라오니이때쇼보살이탈히의싱금홀을보고대경하야
급히진언을넘하야몸을호변근두침에광풍이니러나며돌과모래를늘니고무수괴물
이괴형괴상으로진중에편만하야에위싼것을떨코저하니축융이대노왈요물이도술
을즈랑하노도다역시변하야오류기라찰야채되야일장을구축하니홀연무수귀물이
스러져흔적이업고괴이흔바람이무른남시를부러스면팔방으로호히지며님시마다
가가대쇼하고말하야와축융은변되치말라록슈청산에내종적을누라셔잡으리오하
거늘홍원슈대경왈금일만일요물을잡지못하죽후환이길니로다하고부용검을들어
공중을무르치며무만히진언을넘함애그님시분분이떠려져다시변형치못하고의구
홀일기보살이되야창황이다라나려하거늘홍원슈대군을지축하야급히에위싸고잡
고저하더니쇼보살이다시근두쳐빅여기보살이되니제군이안목이현란하야그잡을
바를아지못하노지라원슈즉시랑중에든빅운도스의주든보리슈를내여공중에더지

니 빚팔기 보리 쥐화하야 낫낫이 화하야 일 빚팔금 슈피 되야 빚여기 쇼보살을 일일이 씨
우니 일 빚칠기 쇼보살은 잔디 업고 다 만일 기 쇼보살이 머리를 부둥기고 싸에 굴며 살기
를 일결흔대 홍원쉬군사를 호령하야 썰니 버히라 하니 쇼보살이 황겁하야 이이 비러
왈 원슈는 엇지 빚운 동초 당밖의 섯든 녀즈를 모르시느뇨 만일은 덕을 남스 와 구일 안면
으로 잔명을 살니 신즉 멸니 종적을 도망하야 다시 인간에 현영치 아니리이다 홍원쉬이
말을 듯고 바야흐로 의회하세드라 왈 네 엇지요 마호정으로 탈히의 사오나 몸을 도아 남
방을 요란케 하쇼보살 왈 이또 혼련디 운쉬라 엇지 나의 할배리 오내 일즉 도스의 설법을
니 이 절령하야 씨드름이 잇스니 종금이 후로 겁진을 벗고 불전에 도라가 악업을 짓지아
닐가 하느이다 하거늘 원쉬 침음량구에 보리쥬를 거두고 부용검을 들어 보살의 머리를
치며 크게 소리하야 왈 요물은 썰니가라 만일 다시 작란흔즉 내오히려 부용검이 잇스리
라 하니 쇼보살이 머리를 조아 빚비사례하고 몸을 변하야 혼나트붉은 여회되야 잔디 업거
늘 제장이 막불대 경하야 원쉬 씨고 왈 이긋치요 사흔거슬 노하보내시니 엇지 타일근심
이 아니 되리잇고 원쉬미쇼하고 빚운 동에서 여쳐쳐 참음을 말하고 왈 그고로 호정의 작
란흔은 사람을 인연함이니 국개래평하고 사람이 슈덕흔즉 데 엇지 작란하며 시운이 불
행하고 사람이 착하지 못흔즉 심산공곡의 호정이 무수하니 엇지 다 죽이리오 하더라 도
독이 대군을 거두어 대룡동에 니르니 임의 일모흔지라 원쉬도 독장중에 드러와 고왈 상
공이 축융의 멸니와 근로하느는 뜻을 아시느니 잇가도 독왈 내또의 심함이 잇스니 몬져 말

함을 듯고 저하노라 원쉬쇼왈 축융은 육심이 만흔재라 홍도디방이 광활하야 남방 중불
쇼흔나라 이라 축융이 반드시 이를 희기 함인가 하느이다 도독이 쇼왈 내또흔이를 의심
하노니 탈히의 무도함이 성명을 용디치 못흔진대 홍도국을 진딩할 재업을 가하엿더니
인하야 축융의 소원을 일워 중이 무방할가 하노라 원쉬그도움을 말하더라 일평명에
도독이 대군을 동전에 진치고 탈히를 잡아 드러 장하에 썰니니 탈히를 거썰지 아니하고
우러러 보며 크게 싸지져 왈 파인이또 혼만승지군이 라 명턴조와 항례할지니 엇지 네압
히 굴슬하리오 도독이 쇼왈 준준 혼오랑 깨하늘 놀음을 모르니 비록 침망할배 아니나 너
도또 혼련디 잔오형지기를 득고오상 칠정이 잇스니 네 죄를 네 엇지 모르리오 사람의 사
름됨은 충회웃듬이라 네아비를 찬탈하니 부조지은을 모름이오 상국을 침범하니 군신
지의를 모름이라 내성지를 밧조와 비록 호성지덕을 배풀고저하니 너긋치 무도흔류는
용디치 못하리도다 탈히눈을 부릅쓰고 슈염을 거스려 왈 부귀지심은 사람마다 잇는바
라 무엇이 널온 충회쇼파인이 만인을 디덕 할용 밍이 잇고련디를 혼들기 운을 가졌스나
시운이 불행하야 이디경에 니르니 네 엇지 산사흔소리로 충효를 말하느뇨 네 닳는 증승
을 보라 약흔자의 고기를 강흔재먹느니례 절과 충효는 교식흔말이라 파인압히 발설치
말라 하거늘 도독이 제장을 보며 탄왈 이는 소위 화외지 밍이라 죽이지 아니흔즉 엇지
여 빚성을 징계하리오 하거 무스를 명하야 썰니 참하라 하니 라도독이 축융대왕을 청하
야 닳니 왈 대왕이런 쇼를 위하야 멸니와 진충하니 그공이 불쇼흔지라 내도라가 황상 씨

주달하고공을표하려니와이제홍도국을진멸할재업스니대왕은이씨의왕이되야정
스를섭형하되빅성을교훈하야반복함이업게하쇼셔축융이니러지비와과인이성조
의은덕을남스와임의대죄를사하사성화지은을더하시고다시홍도국을맛기시니망
극신련은을도보할싸이업슬지니세세조손이은덕을각골하야도독의무리치심을
넋지아닐가하느이다도독이대회하야군스를크게호쾌하고부로빅성을불너어루문
저위로하고충효와인의를배파국진이효유하니모다빅비게슈하고칭송감복하더라
수일후도독이회군할시축융이제장을거느려멀니와도독과원슈씩고별하고또원
슈를향하야초창와과인이비록만막지인이나잇흠은다름이업스니네이일지련이
련성이피이하야평일중국을구경코저일념경경하든초원슈의풍치를흠안하야련애
만리에아바를비리고지리상중함을밍세하니그뜻을억제치못할지라비라건대원슈
는거두어무리치쇼셔다시일지련의손을잡고함루와녀조유형이원부모형데라하얏
스니네이원슈를되서영화를누리라네아비만일련조의은총을남어조희함을허하
신즉부녀지정을다시펼날이잇슬가하노라일지련이부왕손을밧들고루쉬여우하야
반향을말을이루지못하다가오열하며고왈쇼네불효하야슬하를써나혈혈단신이만
리원형하나이또한인연이라북원야야는불효녀식을성각지마르시고홍도국부귀를
안향하사천제향슈하쇼셔도독이길을지축하야형군할시선봉장군퇴련풍이데일디
되고좌익장군동최데이디되고우익장군마달이데삼디되고도독과원슈는대군을거

느려중군이되고손야차는데오디되고소스마는후군이되야데륙디되니일지련은홍
원슈군중에셔르니라만장렬목탑이만병을거느려하직하니도독이군중에남은은조
와치단을가져만병을상하하고만왕에게편지하야렬목탑을상장군벼슬을더하야공
을포장하나라도독이형군하야북으로올서제장삼군이깃뵈을이기지못하야고각을
올니며창검을춤추어고국산천을비라보고왈더기푸른봉오리되는산이유마산이니
덤화관이그아래잇느이다하거늘이때맞춤일모흔지라도독이인하야유마산압회대
군을쉬여경야할시홍원슈도독씩고왈첩이선랑과비록상면함이업스나모음을알기
는형데와다름이업스오니이때를득흔번기롱하고정을퍼고저하느이다도독이웃고
허락헌대원슈이에전포쌍검으로설화마를득고덤화관을향하야가니라츠시선랑이
관중에잇서났이면도스를조차쇼일하나밤이면무료흔심스를억제치못하야괴창을
열고황혼월석을비라보며성각하되내일키너조로스고무천흔곳에외로이북치여잇
서장춧무어슬비라리오더중련의등근들이천첩의심회를가져만리련애의우리상공
씩비칠거시오우리상공의거울곳흐신조감이더들을더하사첩을이곳치성각하시느
니잇가심회를읍쳐창함을이기지못하더니홀연슬넙히나무그림적은은흔중사름의
발자최소리니며일기쇼년장군이장검을잡고돌연이드러와축하에서거늘선랑이대
경하야급히쇼청을써우니그장군이쇼왈랑조는경동치말라나는록림과괴이라랑조
의지물도담함이아니오랑조의성명을해치고저흠도아니라다만랑조의뜻다운일흠

을듯고오미경경하야람화광덤이향내를뵈아이곳에니르렀스나랑조는청춘가인이
오복은록림호걸이라무단이산중도관에쇼슬이쳐하야월티화용을이위게말고복을
조차산채부인이되야부귀를누리쇼셔선랑은환란여성이오평파여겁이라이거동을
당함애므음이셀니고심신이비월하야엇지할바를모르더니그장쉬칼을안고갓가이
드러서며쇼왈랑지이제런라디망에버셔나지못할지라조져차마르쇼셔내일죽랑조
의절개를드렸스니십년청루의일편홍덤은고금에드문배나금일은쓸티업스리라랑
지비록죽고져하나죽지못할거시오도망코져하나도망치못하리니셀니나러나나를
싸르쇼셔순종흔죽부귀를누릴거시오거역흔죽죽으리라선랑이처음은창졸이라다
만망조하더니이에밋쳐는악심이성기니엇지스성을도라보리오몸을셀니나러상두
의적은칼을집고져함애그장쉬웃고압홀막아선랑의손을잡으며왈랑조는고집지말
라인성빅년이초로와코흐니북망산흔덩이흙에홍안이적막홀제랑조의구구흔지조
를말홀채넌잇스리오선랑이손을셀치고물너안져크게썩지저왈승평성세에개코흔
도적이엇지이다지무레하코내너를티하야순설을더레우지안일지니셀나내머리를
취하야가라언필에괴석이추상코거늘그장쉬왈랑지비록더코치팅릴하나내뒤에랑
조를겁박하랴오는장쉬또잇스니그때도능히순종치아니홀쇼나언미필에بات기요란
하며과연일위장군이랑기부장과십여명갑스를다리고거지현양하야언연이거러드
러오거늘선랑이탄왈괴이하도다내신세여천난만고를열려코필경적장의칼머리

에원혼이될줄엇지아랏스리오이제비록괴코져하나피홀길아업고죽고져하나죽을
방략이업스니세상에엇지이코흔경상이다시잇스리오하더니그장쉬당에오르며부
장과갑스를물니고바로방중으로드러와축하에서거늘선랑이흔번우러보고육안
이변적하며더욱놀나망연이정신을일흙코흐니이느별인이아니라이에양도독이라
도독이홍원슈를몬져보내고대군을안돈흔후뒤밋쳐옴이라도독이좌를딩흔후선랑
이오히려경흔이미딩하야말을일우지못함애도독이미쇼하코선랑을향하야왈랑은
평디풍파를무수이당흔재라또의외방랑흔남조를맛나능히욕을면하코선랑이추연
왈도관에쳐흔후세잔쇼식을망연이듯지못하니금일상공의이코치니르심는뜻하지
못흔배라더장군은누구니잇고도독이쇼왈이느랑의지과강남홍이오나의장슈흔흔
탈인가하노라홍원슈이에선랑의손을잡고갈오디랑은강슈에쳐하코첩은강남에잇
서점가옥슈에용광이조겨하나령서빙호에홍금이비최여평슈종적이흔번맛남을원
하얏더니동시괴박흔되라평디풍파와슈중겁흔이삼지팔난을겪고이곳에이코치
맛남을엇지괴팔하얏스리오선랑이샤레왈첩은경궁지되라홍랑의강중원흔됨을임
의숨인가하얏더니다시장쉬되야잔명을겁박함은더욱숨속의숨이로다도독왈다쇼
설화노비록듯지아녀알너니와랑이임의엄명을되와고향으로축송흔몸이되얏스니
언연이나를조차임성치못할지라이곳이그장중용하코모든도식응당숙면이니아죽
잇든곳에잇서나의차즘을기드리라선랑이응락하더라홍원슈쇼왈선랑이룩님직을

맛나 놀남이 적지 아니 할지니 압경주를 권하스이다 하고 손야 차로 군중의 늑은 술을 가져오라 하니 도독왈 제간에 더 못하든 다온 룡림직이 잇스며 더 못치잔 약한 압채부인이 잇스리 오고 서로 대쇼며 각각 취흔 후 도독이 원슈와 군중에 도라 갈식 모든 도스를 불너 처단과 온조로 써면면이 처사하니 도식 불승 황공하야 선랑을 더 육공경 흠양하더라 처시런지도독의 대군이 갓가이니를 알으시고 레부시랑 황여옥을 명하야 도독을 마조라 하시니 원리 황여옥이 당일 전당호로 도라와 추회지심이 날로 더하야 알내방랑하야 지조잇는녀조로나를 인연하야 슈중원혼이 되게하니 이엇지런디 신명에 획죄치아나 리오고 인이 날넛스되 취물이 업스리오마는 그곳침이 귀하하얏스니 내임의그름을 알고 곳치지 못흔 즉 장취아니로 다하야 일절쥬식을 얻코정스를 힘쓰애수월지간에 소취대치하야 름을 빙성이 못아드니 밋과들이크게 열니고려염이 즐비하야 피를 닦가 길을 널리고 슈목을 버려 촌락이 성기니그치적이런하데일이 됴에런지 드르시고 레부시랑을 빙하야 부르시니 봉우천척이모다크게 놀내야 전후두사름을괴이히 녀이더라 이때런지 탑전에 부르샤하교왈 정남도독양창곡과 부원슈홍흔탈이회군하야 갓가이온다하니 경은 짐의 몸을바다아가 마저오라 하시고 또하교왈 양창곡은 경의미취라 남미적조흔정을 겸하야 퍼라하시니시랑이 슈명하고 즉시형홀식도독의대군이 임의벽여리 밋과니르러더라시랑이공복을조초아전전에홍흔대도독이진문을열고인도하야서로레필에도독이눈을드러시랑을잠잔봄애거지용용하고괴상이슈

연하야전일압강당상에보던황조식아니라심중에대경하야흠신쇼왈내귀문에던안흔지수년에형들이제상면하니비록서어하나형이압강당연석의양슈지를괴억홀쇼나황시랑이괴용샤왈하관이불민하와풍류우실로도독씩득죄함이만하나금일임의슈류은공하고시이스왕하니허물치마르쇼셔도독이대쇼하고그절절기과함을공경하더라황시랑이부원슈씩청알하니도독이그본식이탄로함을조저하나또흔공레라만류치못하니황시랑이홍원슈장중에니르러레필좌명에시랑이눈을드러원슈를보니단순호치에눈섭이가늘고룩빈홍안에용되아릿다와성관전포로회미이안졌스니정정흔티도와당돌흔괴상이십분눈에니어나창졸간의희하야왈하늘이국의양필을주샤원슈의성명이우뢰호흡으로흔번회음을원하얏더니이제황명을밋조와용광을접하오니엇지영형치아나리오홍원슈취파를홀녀황시랑의거지를숨히며말을드르니구일소쥬조스황여옥이아니라심중에괴이하야왈흔탈이만중류락하자최로련은이망극하야중도의괴용지를뵈오니일즉쫓흔배아니로소이다황시랑이그성음을드르니랑랑이옥을바아고력력히대를싸리논듯하며또귀에니은지라심중에당황하야하다가바야호로의희이세드라왈강남홍의후신이아니냐세간에얼골호흔재만흐나홍랑은다시무쌍흔국식이라그하나히잇고돌이엮슬지니홍원슈의용모성음이엇지그리홍랑과흡스하노하고문왈원슈년괴멋치나되시노원슈왈이십오세나이다시랑이쇼왈원슈만성을속이심이로다년괴약관에지내신즉용되엇지더못치어리시

리오하고 만히 손을 곱아 보더니 다시 미소와 원슈의 외모를 짐작건대 청춘이 심철세
에 지나지 못하신 가하느이다. 홍랑이 이 말을 듣고 심중에 생각되 황여옥이 비록 구슬
을 못쳤스나 오히려 나를 낫지 아니하고 이 못치 할 난하니 엇지 괴롭지 아니리오. 고이
에 정석왕대 장비평성 형지를 퇴락하고 광명정대하리니 엇지 나 홀속이 리오이. 는
사랑이 혼탈을 만모함이로다. 황사랑이 기용사례하고 스스로 실언함을 추회하더라. 즉
시 몸을 내려도 독장중에 외소와 승상이 남정야간 성지를 었으니 이제 그 용모를
불애과 연명 불허득이나. 십분녀조괴상이 잇스니 괴이하더라. 다도독이 쇼와 한 나라. 장
조방은 삼결에 드렸스나 그 얼골이 부인조다하엿스니 혼탈의녀조괴상을 엇지 족히의
심하리오. 고더라도 독이 사랑을 군중에 쉬게 혼후 원슈를 불너 쇼와 랑이 황시랑을 불
애 반갑지 아니더냐. 홍랑왕수년지 간에 만시여몽하야은 원을 나젼스니 무엇이 반가우
며 무엇이 뉘을 배잇스리오. 도독이 쇼와 황시랑은 랑의은 인이라. 만일 전당호풍패아닌
즉 부원슈공명이 엇지 성기리오. 오홍랑왕황시랑은 본디 흐린 재라. 십분강남홍과 칠분홍
혼탈을 분변치 못하니 비록 우으오나 그 위인이 변하야 일기 군지 되엿스니. 종금이 후로
압강당상에 양슈제를 착리하느니. 과개업술가하느이다. 다도독이 또 한 웃더라. 초시도독이
형군함을 저촉하야 임의 남교섭리. 밧게니름애던 제법가를 명하사. 성외에 삼층단을 모
으시고. 헌괘지례를 밧고. 저하사. 문무백관을 거느리시고. 단상에. 댈좌하. 신후도독의대
군을 기드리시더니. 이윽고. 홍진이니러나. 는. 곳에. 일디. 군리. 전형하야. 나. 르니. 이. 는. 전. 부.

선봉되던 풍이라. 단하. 박보. 밧게. 전. 제. 를. 배. 푸. 니. 도. 독. 과. 원. 슈. 뒤. 를. 니. 어. 제. 장. 삼. 군. 을. 거. 느.
려. 초. 례. 로. 니. 르. 러. 단. 하. 에. 결. 전. 할. 서. 기. 치. 창. 겹. 은. 일. 월. 을. ㄹ. 리. 고. 고. 각. 포. 향. 은. 런. 디. 를. 단. 동.
하야. 출. 전. 하. 던. 날. 과. 조. 곱. 다. 름. 이. 었. 더. 라. 도. 성. 녀. 의. 구. 경. 하. 는. 재. 구. 름. ㄹ. 리. 고. 여. 십. 리. 남.
교에. 사. 름. 이. 바. 다. 를. 일. 헛. 스. 니. 도. 독. 과. 원. 슈. 홍. 포. 금. 갑. 으. 로. 궁. 시. 를. 차. 고. 슈. 기. 를. 들. 고. 제. 장.
을. 지. 휘. 하. 야. 헌. 괘. 지. 례. 를. 형. 활. 시. 북. 을. 쳐. 전. 제. 를. 세. 번. 변. 하. 야. 방. 진. 을. 일. 우. 고. 군. 약. 을. 올. 너.
승. 전. 곡. 을. 알. 외. 며. 삼. 군. 이. 출. 추. 어. 개. 가. 를. 부. 르. 니. 그. 소. 리. 산. 약. 이. 문. 허. 지. 고. 바. 다. 를. 뒤. 집. 는.
듯. 하. 더. 라. 부. 장. 일. 인. 은. 정. 남. 대. 도. 독. 기. 호. 를. 잡. 아. 데. 일. 위. 에. 서. 고. 또. 일. 원. 은. 박. 모. 를. 잡. 아. 데.
이. 위. 좌. 편. 에. 서. 고. 또. 일. 원. 은. 황. 월. 을. 잡. 아. 우. 편. 에. 서. 고. 또. 일. 원. 은. 탈. 히. 의. 슈. 급. 을. 밧. 들. 어. 데.
삼. 위. 에. 서. 고. 도. 독. 은. 갑. 주. 궁. 시. 로. 데. 스. 위. 에. 서. 고. 또. 부. 장. 일. 원. 은. 정. 남. 부. 원. 슈. 기. 호. 를. 잡. 아.
데. 오. 위. 에. 서. 고. 또. 일. 원. 은. 박. 모. 를. 잡. 아. 데. 육. 위. 좌. 편. 에. 서. 고. 또. 일. 원. 은. 황. 월. 을. 잡. 아. 우. 편. 에.
서. 고. 홍. 원. 슈. 도. 또. 혼. 갑. 주. 궁. 시. 로. 데. 철. 위. 에. 서. 고. 소. 유. 경. 되. 던. 풍. 동. 초. 마. 달. 손. 야. 차. 이. 하. 제.
장이. 초. 례. 로. 버. 러. 선. 후. 군. 약. 을. 올. 너. 며. 단. 상. 에. 올. 을. 서. 데. 이. 총. 에. 니. 르. 러. 기. 호. 와. 절. 월. 을. 좌.
우.로. 갈. 나. 세. 우. 고. 도. 독. 이. 탈. 히. 의. 슈. 급. 을. 천. 히. 드. 러. 원. 슈. 와. 데. 일. 총. 에. 올. 나. 탑. 전. 에. 노. 킨. 삼.
보. 를. 물. 너. 서. 군. 례. 로. 보. 이. 니. 런. 지. 교. 의. 에. 는. 리. 사. 읍. 하. 시. 니. 이. 는. 종. 묘. 사. 작. 의. 안. 위. 를. 위. 하.
심. 이. 라. 도. 독. 과. 원. 슈. 헌. 괘. 지. 례. 를. 밧. 고. 본. 진. 에. 도. 라. 와. 삼. 군. 을. 호. 궤. 하. 고. 파. 진. 약. 을. 알. 월. 서.
제. 군. 이. 취. 포. 함. 에. 창. 겹. 을. 출. 추. 고. 즐. 기. 는. 소. 리. 우. 뉘. ㄹ. 더. 니. 장. 전. 에. 정. 을. 치. 며. 대. 군. 을. 일. 시.
에. 허. 송. 하. 니. 제. 군. 이. 도. 로. 허. 도. 독. 과. 원. 슈. 의. 휘. 하. 셔. 남. 을. 초. 창. 하. 야. 하. 더. 라. 이. 때. 종. 군. 혼. 군.

周亞夫

스의 부모 처지서 손잡고 소매도 씌으려 혹 눈물도 썩리며 혹 춤도 추고 혹 던도 할야
오래 떠난 회포를 이기지 못하며 백만군이 전장에 일인도 죽은 재업스니 모든 부외곳곳
이 청초와 우리 황상의 성덕과 도독의 복력은 전고에 드므다 하더라 천지 단상에 면좌하
샤 도독의 파진함을 보시고 희동안석하샤 황윤랑 각로를 보시며 월침의 양창곡은 한나
라 주야 부도 당치 못하리라 하시더라 법개 환궁하심에 도독이 또 혼원슈를 다리고 부중
으로 도라올서 원슈가 만히도 독씩고 월침이 남복으로 본부에 드러감이 불가치 아니리
잇가 도독이 쇼월련조지전에도 장슈로 뵈왔스니 본부문전에 홀노 남지되지 못하리오
하고 각각 휘하 장졸 백여기를 거느리고 일지련손야 차로 입성하니라 차설양부상해도
독의 입성함을 듯고 원외의노의당을 치우고 접빈함을 분별하며 허부인은 의문하야 바라
보고 윤쇼저는 주식을 준비하야 기드리더니 남로녀복이 본분이 전도함에도 독이 원슈
와 본부문전에 수리를 느리며 창두에 게분부하야 원슈는 조침실로 인도하라고 하고 바
로외당에 너르러 몬져 부친씩 뵈오니 원외평성품이 준지하야 희로에 경동함이 업더라
니 이날은 조를 덕함에 깃쁨을 이기지 못하야 조를 다리고 외당에 드러갈서 거름이던
도 하야 신이 버서지고 관이 떠러 짐을 세듯지 못하더라 허부인이 마조나와 조의 손을
잡고 반김이 과함애 홀루하더라 도독을 어루몬져 월조지수년풍전에르고 하나 일골이 풍
영하고 괴질이 장대하나 엇지 괴득지 아니리오 원외와로 뵈운 현부를 인연하야 홍랑의
성존함을 대강드러더니 부원슈 부중에 너르렀다 하나 이 홍랑이 아니냐 도독이 쇼이디

알종적은 휘하고 군중에 부리움을 왕스를 위함이 오가중에 너르러 죽시현알치 못함
은 너조의 의상이 업슴을 인함인가 하나 이다 원외대쇼와 군위일테라 황상이 임의 장슈
로 데리하시니로 뵈었지 구애하리오 셤니 부르라 혼원슈 비록스실에 왔스나 벼슬이오
히려몸에잇는 지라 제장군졸이 문전에 되서 잡인을 금하니 홀노련옥이 심중에 홍랑인
줄알고 급히보고 저문외에 방황하나 감히드러가지 못하더니 혼원슈 손야차를 불너분
부와 내스실에 왔스니 잠간 장졸을 물니라 혼대제장군졸이 텅텅하고 물너나 매다만 손
야채넙히잇더라 당시비도독의 명으로 혼원슈를 청하러나 오다가 문외에련옥을 맞
나 제장이 물너감을 보고 조침문압히너르니 문밖과 알기로 장이 융복에 궁시를 차고
섯스니 검은얼골과 푸른눈이 십분녕악호지라 당시비물너서거늘련옥이 엇지
손삼랑을 물나보리오 반겨 손을 잡고 실성호곡하니 그로장이 또 혼함루알원슈 방중에
계시니 크게 험화치말라 하고 방으로 드러가더니 죽시나와련옥을 부르매련옥이 시비
를 밧게세우고로 장을 세라 침실에 드러가니 구원일별에 음용이적막하야 안중에 숨숨
하고 심상에 암암하던고 주홍랑이 울연이 안젓거늘련옥이 반기며 놀나원슈에게 얻드
리며 방성대곡하니 홍랑의 장부조흔심스도 혼졸기 눈물을 금치 못하야 랑구히말을
못하다가련옥의 손을 잡아 나리려할우리로 뛸죽지안코다시맛났스니 무궁혼정회는
후일이인슬지라 급히 못느니도독이 어디서나를 부르시더뇨련옥와니당시비상공의
명을 밧조와 문밖에 왔스니 이다 원슈 죽시부루대시비방중에 드러서며 위선원슈의얼골

을잠간치어 다보고심중에 대경왈 내련하국식을우리쇼저와현량박괴업논가하얏더
니또엇지더러흔조석이세간에잇는고하야눈이황홀하고정신이취하야말업시얼인
듯이섯거늘홍원쉬문왈차환은어느니당시비노시비티왈천비는로부인슈하천비로
소이다원쉬우문왈도독이지금어디게시며나를어디로드러오라하시더노시비티왈
도독이윤쇼저침실에드러가시며원슈색로부인침실로오라하시더이다원쉬일지련
손야차를보며쇼왈내빅만지중에남북으로회형하나조곰도슈속함이업더니이제이
형상으로부인로상공씩되옵기엇지붓그럽지아니리오하고궁시창검을글너손야차
를주고성관전포로련옥을압세오고니당으로드러갈식일지련을도라보아왈내쳐소
를명흔후랑과손랑을부르리라하고침문에나매본부시녀십여명이게하에그득하야
원슈의나음을보고다도아뒤를쓰르며길을치워그만히조랑왈진짓우리상공의쇼실
이로다벼슬이또흔우리상공과조호시니련조도공경하시는배라엇지우리부종의빛
노일이아니리오하더라침실중문에나매윤황량부시비와황성중모든경상가차환이
구름모이듯하야그치며침실중문우리주문갑데에성장하야규중숙녀를무수이보았
스나이곳흔안식은처음보는배라붓으로그리고저하나쳐석이업고옥으로삭이고저
하나흔적이잇슬지라하늘이무슴조화로이곳치고절하게품부하신고하야모다짓거
리더니그중수기시비반겨내드러니이윤부시비로향주왔던재원쉬위하야거름
을멈추고윤각로와소부인안부를일일히무른후또일기동조와일기창뒤마저문후하

니동조는향주왔던동지오창두는조괴청루에서부리든창뒤라원쉬추연기용하고면
면이위로하더라원쉬허부인침실당하에니르러발을멈추고시비로고흔대원의와부
인이오름을지축하니원쉬바야흐로당에올나손을씻고되서서니원의가가이안즘을
명하고속시량구에희석이만면하야왈세상에부모된재조식의총첩들을곳하여깃거
할배아니나너내집에런명연이라범상한아들의인첩으로되접지아닐지니내또
흔더욱조심하야구고의뜻을저버리지말라허부인이우왈내네일흔을알고악보를드
른후심중의차석하기독척과다름이업더니이제진명에도오샤다시오가에드러와조
부지렬에참에하니엇지괴특지아니리오하고원슈의전포소매를것고손을문지며쇼
왈네나히몇치노원쉬왈침철세로소이다우문왈이곳쳐형약흔괴질로시석풍전에장
슈노릇함을내밋지못하노라원쉬슈습하야머리를숙이고되답지아니하니부인이다
시쇼왈내흔고일업서심심할때만흐니석어미로서어이알지말고벗삼아전장의싸호
든설화로쇼견케하라원쉬유유하고복석이괴이하야오래존전에되심이불안흔지라
니러호외에나매원의부인드러왈조고로홍안이복잇는재적으나이제홍랑은절세흔
조석으로평성슈부귀를누릴거시오너조로장슈됨애혹살괴와당돌함이잇슬가하얏
더니또흔단아유쇼하고화길흔인물이니이노오가의복이로다하더라초시원쉬로부
인침소로나음을알고윤쇼제련옥과모든시비를느러세워원슈를인도하야밤비음을
지축하니엇지반긴고하회를보라

데이십오회

군공을 의론하야 도독이 왕을 봉하고

성황을 알외야 동홍이 자최를 받하다

論軍功都督封王

奏笙簧董洪發跡

각설 홍원쉬운 쇼저침실에 망망이니 르러 오니 윤쇼제침문에 마조나 오며 왕홍랑아네
 능히 죽지 아니하고 고인을 차자오는 나원쉬쇼저의 손을 잡고 량항옥 위귀밋을 저서여
 왕첩은 임의죽은 몸이라 종금이 후는 쇼저의 주신배니 성아조는 부외오이아조는 쇼저
 로소이다 인하야 서로 붓들고 침실에 드러가 별후홍금은 일희일비하고 무궁정회는 후
 담혹쇼하니 쇼제문왕랑아 그 슈중야 차손삼랑이 엇지된고 홍원쉬왕또한 첩을 조차
 밧기 왓느이다 쇼제괴이히 녀여련옥을 명하야 부르라 함애야 채즉시니 르러 문후하니
 쇼제반기며 놀나 왕랑의 석일용모를 알아 불길이 업다나로 인연하야 슈중첩혼이 된
 가하얏더니 엇지 화석호로 장이되야 일홈이 국가에 밋날 줄아 랫스리오야 채왕이느다
 쇼저와 원슈의 은덕이로소이다 하더라 도독이 후원동별당을 원슈쳐소로 덩하니 원슈
 일지련손야 차와련옥을 다리고 가니 야에 도독이 량친을 피서 종용이 말슴할시 원
 외와 부인이 측연한 빛이잇서 그스이 선랑의 풍파를 대강 말하며 왕네아비 귀먹고 눈어
 두어가스를 아지 못하노니 이조는 알아 처치하라 도독이 피석왕이느다 쇼저의 죄로소
 이다 부질업시 덩수에 넘은 처첩을 두어 슬하에 불효를 이긋치세 치오니 추희막급이오

며스고 장대하야 연관의 상쇠니 러낫스오니 혼갓쇼저의 천편홀배아 날가하느이다 하
 더라익일던지 문무백관을 모으시고 군공을 의론하실시 도독이 융복을 궂초아 입컬하
 라하더니 홍원쉬고 왕첩이일시 권도로 장슈되야 현곡지전은 비록 벼슬을스면치 못하
 야스나 금일록훈하는 자리에다 시드러 감은불가하니 이제 상소하야 일장을 알외고저
 하느이다 도독왕내바야 호로 권코저하얏더니 량의말이 당연하도다 하고 도독이 즉시
 소유경되던 풍동초마달일반제장을 거느려 조반에 올음애던지 홍원슈의 아니드러 음
 을 무르신대 한림후시일장표를 가져잡전에 주왕부원슈홍혼달이 조반에 불참하교 표
 를 올니느이다던지대경하야 밤비늘으라하시니 그표에 대강왕

臣妾紅渾脫 江南賤妓
 신첩홍혼탈은 강남천기라

던지드르시다 가악연실식하야 좌우를 보시며 왕이 엇진말이 노뻗비늘으라 하셔셔터여

남어왕

命道奇薄 風濤飄泊 蒼海一粟 幾死僅生 有往莫來 深山道觀
 명도기박하야 풍도에 표박하니 창해일속이 괴스근싱하교 유왕막라심산도관에

道童 相從 絕域風塵 將帥託身 故國 爲 功名
 도동으로 상종하교 절역풍진에 장슈로 락신함은 고국에 도라움을 위함이 오공명을

比 牢音이 아니려니 의외일홈이 조영에 등철하교 벼슬이 원슈에 밋스오니 남교현곡

에 임의한출침비하와 괴군지죄를 도망치 못하려든 물며 금일론공에다시 당돌이

참예 君父 훈족 欺罔 군부를 길 이고 망 朝廷 고 隱然 조영을 은연 削 조롱함이 伏願陛下 라 부원 天地父母 폐하 臣 는 臣 든디 臣 부 臣 외 臣 라 臣 신 臣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괴이^{奇異}하다^卿경의일이여^周주나라^{亂臣十人}란^{女子}신섭^女인에^子녀지^子참예^子하^子얏스니^子국가^{國家}의^子용인^{用人}함이^子다^子만

지조를 취홀지라
男服 朝班
엇지 남녀를 의론하리
男 女 小 事 家 中
오경은 벼슬을 스양치 말고
卿
국가를 도아대시
國 家 大 事
잇거든 남복으로
男 服
쇼반에 오르고
朝 班
쇼스는 가중에 서
小 事 家 中
결단하게 하라

도독이돈슈주왕호호탈이비록신을조차시섭풍진에견마지력을효측함이잇스오나
그분의를말씀호족불과제가부들위함이니신의벼슬이즉호탈의벼슬이라미천호녀

조로관직을 오래 모렴함이 불가하니 다상이 쇼왕경이 총회를 위하야 짐의 잔성지
 를 빼앗고 저하니 평일 밋든 배아니로 다짐이다 시 혼탈을 인견코저하나 대신의 쇼실됨
 을 레덕하야 못하거니와 그 벼슬은 스면치 못하리라 하시고 군공을 의론할 서정남도독
 양창곡은 연왕을 봉하야 형우승상스하고 부원슈홍혼탈은 란성후를 봉하야 형병부상
 서스하고 형군스마소유경은 형부상서 겸어스대부를 비하고 퇴던풍은 상장군을 비하
 고 동초마달은 던전좌우장군을 비하고 손야차는 파로장군을 비하고 기여제장은 공되
 로 벼슬을 더하시니 도독이 우주왕제장 손야차는 또 혼강남녀지라 혼탈을 썩라 군공
 이 비록 업다 못하나 관직은 불가 할가하느이다 상왕 유공필관은 조가 용인지 법이라 직
 락을 주고 황금천량을 별로 상스하시다 도독이 우주왕 남만축융왕이 흥도국 싸홈에 유
 공할 썩아니라 축융이 아닌 즉 흥도국을 진압할 재업습기 임의 흥도왕을 섭형하라 하얏
 스오니 인하야 왕작을 봉하심이 요할가하느이다 상이의 윤하시다 연왕이 샤은 퇴조할
 서상이 또 하교왕 란성후 홍혼탈이 성중덕택이 업슬지니 탁지부로 조금성 데일로 연
 왕 부를 련하야 란성 부를 짓고 가동 빅명파 시 비 빅명파 황금삼천량 파 처단 삼천필을 스
 급하시니 연왕과 란성 휘제 삼상소하야 스양하나 상이 불 윤하시다 라 수월 후 란성 위 일
 우니 장려 평결 함이 연왕 부와 상 등하나 란성 휘거하지 아니하 고 시 비가 동과 부속을 두
 고 란성은 연왕 부에 있더라 연왕이 왕작을 더홈에 레부에서 원외와 허부인 율황량 쇼저
 직 락을 느리 와 원외는 연국 태공이 되고 허부인은 연국 태비 되고 윤 쇼저는 연국 상원부

인이 되고 황쇼저는 연국 하원부인이 되고 쇼실은 각각 속인을 봉하니라 일일은 연왕이
과조후던지 종용인견하시고 문왕경이 출전후가중에 무숨요란 혼일이 있는 듯하기
로 짐이 경의 쇼실을 잠간 고향으로 보내라 함은 풍파를 진정하야 경의 환가함을 기다림
이라 경은 구애치 말고 뜻대로 처치하라 연왕이 돈슈하고 벽성선의 일을 대강고 혼대상
이 쇼왕조고로 인가의 이 못 혼일이 혹잇는니 경은 종용결쳐하야 화목함을 힘쓰라 연왕
이 황공샤례하더라 즉시 퇴출하야 도라오는 길에 윤각로 부중에 이르니 소부인이 반김
을 이기지 못하야 만리원방에 회군함을 치하하고 천히 비주를 권하며 담담히 회와 미
미히 말슴이 끈치 아니하야 왕승상의 년과 비록 청춘에 계시나 벼슬이 높흐샤 왕공대
인이 되시니 도로혀 교서의 조미를 모르코 의연이 대빈의 존경함이 잇스니 미양무궁정
회를 다 못하느니라 한가함이 잇거든 자조심방하야 담요로 교서의 조미를 보라 노
라 연왕이 웃고 잔을 들며 마시며 응락하거늘 소부인 왕근일녀식을 오래 보지 못하코 엄
연이 왕후부인이 되얏스니 그 특함이 엇더라 못하려니와로 신의 마음은 강보유치와 다
름이 업서스랑으로 길고그침이 업스니 아지 못케라 큰 허물이 나 업더니 잇가 연왕
이 츠시 반취하야 춘풍이 미잔에 그득하코 봉안에 우음을 띄여 왕외성이 본디 허물이 만
흔사름이라 실인의 우실을 모르거니와 우호로량천이 맛당하다하시고 아래로 비복이
원망치 아니하오니 평일 교훈하신 덕인가 하오나 다 만흔가지 부족체잇더라 소부인
이 무안하야 얼골이 붉어왕제부족체벽가지라 엇지 한가지 뿐이리오 연왕이 쇼왕외성

이 방랑하야 랑기 기첩을 두었더니 부인이 투과지심이 파하야 왕왕이 희게 무수하니
게 근심이로 소이다 부인이 심중에 대경하야 후선랑지스에 잔접함이 잇는가 하야 묵묵
무답하더니 연왕이 다시 쇼왕빙외후강남홍을 괴역하시느니 잇가 부인 왕로신이 홍을
항쥬셔보고 그 위인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노이다 연왕 왕외성이 남정하야 의외에 홍을
맛나다려왔더니 실인이 대단 불락하야 파게만하니 이는 다 외성의 죄로 소이다 부인이
쇼왕이 노승상이로 신을 속임이로 다녀의 홍과 지과지위라 그러할리 업슬가하노라 연
왕이 쇼왕빙외후강남홍이 그리오 샤밋쳐 숨히지 못하심이라 실인이 전일은 홍을 공심
으로 사피며 지과로스랑하코 금일은 덕국으로 봄애 안중의 가시 못하노니 이또 혼연쇼너
조의 상정이니 빙모는 종용훈계하쇼셔 소부인이 츠언을 듯고 슈피무면하코 치신 무디
하야 다시 말이 업거늘 승상이 미쇼하며 다시 음을 고하코 도라올시 황각로 부중에 이르
니 위부인이 한원례필에 처연왕승상이 성공환국하시니 그것봄이 비할디 업스오나녀
의 병이 골슈에 입혔스니 진소위 남궁가란 북궁취라 조물의 식과 함인 가하느이다 연
왕이 링쇼왕길흥화복이 제게 잇느니 엇지 전혀 조물을 듯하리 잇고 위부인이 다시 답고
저하더니 연왕이 총총함을 말하코 곳나려도라 가니라 차설윤부인이 구가에 드러온지
수년에 동용쥬선이 삼일신부와 다름이 업서 효어구고하코 쇼어부조하야 관저규목에
붓그릴배업더니 일일은 유모설패부인의 셔건을 가지고 왔거늘 윤부인이 셔건을 보니
왕

내너를아들코치마르쳐구가에보내야름다운기림은브라지못하나듯기실흔웨
言언이나업슬가하얏더니이제드름애현숙한덕행은업고낭자한소문이잇서로모로
置身無地치신무디케하니엇지한심치아니리오대범부녀의투기는칠거지악에우심한취명
塞心
大凡婦女
羽翼
世間德
德
君
衆
恩義
衆
 이라내몸을다근죽군지비록중첩이잇스나우익이될거시오내덕이업슨죽군지비
 록중첩이업스나은의를엇지보전하리오내세간의덕이잇고투기하는자를보지못
 하얏스니숨흐다내살이여여괴니르단말가

윤부인이람필에미쇼무언하더니설파를보며왈어미올제로부인이무슴말이게시더
 료설패이윅히싱각하다가왈별로말숨이업스시나투기가무엇인지쇼저의투기함을
 거정하시더이다윤부인이또미쇼하니설패은근이문왈무엇이이투괴니잇가쇼저는
 마르쇼셔로부인이대단근심하시더이다윤부인이또쇼이부담하니설패지삼문왈투
 괴가무엇이니잇고윤부인이피로이녀여왈그것은알아무엇하랴는료밥먹고잠자
 는거시투괴니라설패대경왈우리로부인이로망이로소이다로진은혀어갈스록세상
 에싱각나는거시투괴맞게업더이다윤부인이흔자우음을춤지못하더니홍란성이드
 러오거늘윤부인이모친서간을내여보며왈랑이그출처를알쇼나란성이람필에랑연
 쇼와첩이맞당히부인을위하야금야언근을담득하야명일로부인책히혹하시게하리

니부인은다만여쳐여쳐쇼셔윤부인이웃더라시야에연왕이란성을차자별당에니
 르니란성이축하에초연독좌하야무슴싱각이미우에그득하거늘연왕이겻히안즈며
 문왈랑이또신상이불평하나엇지괴식이초초하랴란성왈괴식이불평치아니코심중
 이불평하오이다연왕이경왈무슴불평함이잇는료란성이탄왈사물이혐의지디에쳐
 혼죽심스를몹히기어렵고심스를몹히지못혼죽평일지괴라도름이싱기는니엇지개
 연치아니리오연왕이대경하야곡절을못거늘란성이침음랑구에왈첩이아싸윤부인
 침실에갓더니부인의유모설패모부인서간을가져와스연이여쳐쳐고설패의괴
 식이첩을의심하니첩이일즉시석풍진에도걸함이업스나이를당함애발명무뢰라조
 연찬썸이등에저짐을쳐못하니비로소인간에중첩됨이어려움을알너이다연왕
 이쇼왈이논랑의조첩혼싱각이라윤부인의복음으로혈마랑을의심하리오란성왕첩
 이역디스지하나첩밖괴의심할재업스니부인의임스지덕은세상의아는배라이말이
 어디셔나리잇고언필에괴식이참담불락하거늘연왕이웃고란성의손을잡아왈이논
 나의일시롱락을인연함이니결재히지라내맞당히윤부인을보고폴니라하거즉시윤
 부인침실로가거늘란성이웃고그만히뒤를싸라가창밖괴서드르니연왕이부인을보
 고문왈아싸설패무슴서간을가져오니잇가혹혹성이오래빙모찌가뵈옵지아님을척
 하심이러니잇가부인왈아니리이다연왕이쇼왈그편지어디잇는쇼잠간보고저하노
 라하거그릇을뒤여차자들고부인을도라보며쇼왈이편지혹은근흔스연이업는니잇

가부인이아미를숙이고디답지아니하니연왕이축하에퍼들고고성대독왈혹성이혼
암하야부인은투괴지심이입는가하얏더니빙피엇지천금교의이디말숨을척하
시리오부인이또디답지아니하니연왕이다시편지를넘으며쇼왕부인은성너지말
고종금이후로투심을브리쇼서속담에운하되불아니씩이죽연괴어티로나리오하얏
스니빙모의명찰하심으로어련이듯조시고말습하시리잇가부인왈로천이외로게
시니소문이엇지절로가리오연왕이쇼왕연즉위이라말을자어내니잇고부인왕군
조의사괘은담하기물곳고쇼인의사괘은들기술곳다하니그사람이든즉필경변하느
니첩이부절업시들개사괴여허심함이있더니모음이점점당돌함인가하노이다연왕
이란성의팔이을음을알고심중에추회왕윤부인의룡달함으로도너조는편성이라내
부절업는희언으로량인을리간하도다다시갈오디이는혹성의룡락이라작일빙모씩
죄음애교서의조미를못보아하시며부인의비혹업습을범스하시기로여쳐여쳐
더니빙피속으심으로다윤부인이혼자우음을참지못하더니창외에기침소리나며란
성이웃고드러와안즈며왕상공이백만군중에강력을디하시나항복지아니시더니이
제규중부인을당치못하샤항변을쇼시느잇가연왕이란성의괘괘을알고대쇼왕내
부인씩항복함이아니라만장홍흔탈의괘술에빠짐이로다하코인하야부인과란성을
디하야탄왈금일일장동담은혼번웃고저함이라만일란성이아닌즉엇지술이하하리
오조고로부녀의투괴는칠거지악에우심흔취명이라불행이내집에이를범흔재잇서

조명서지등철하니맛당히흔번엄치사히후후석을분변하려니와데일조기를근포
흔후스괴탄로홀지라내근일조명에다스하야스스를결을치못하니각관산중에고초
를호을로겨는재엇지촉연치아니리오하더라차시묘위분답하야연왕이죽일입결하
야야심후나오더니일일은월석이장아름답고맛춤연왕이일즉되조하야조복을벗
지아니하고량천씩죄온후바로동별당에나르니란성이란잔을의지하야들을브라보
고안젧거늘연왕이쇼왕흔탈아금야동별당월석이석일련화봉월석과엇더하노란성
이웃고마져왕넷일을싱각흔즉무비춤이라한가흔더명월이엇지홍흔탈의분주함
을웃지아니하리잇고연왕이대쇼하코란성의손을쓰으러당하에느려월하에비회하
며련상을우러러봄에청련에일덤구름이업고성광이되락하야파리반에구슬을흔흔
듯복편을브라보니조미데원에혹괴자욱하코삼티팔좌에겹괴어리엿거늘연왕이놀
나란성을보고왕랑은더괴운을알쇼나란성이추파를홀녀이윽히보더니왕첩이엇지
련상을알니잇고마는일즉빅운도스에게듯스오니삼티팔좌에겹괴고지미데원
에혹괴답히인즉잔신이조명을탁란하야련조의총명을그리온다하니엇지국가의근
근심이아니리오연왕이탄왈내또흔심중에이를념려함이라조고로인군이미양민간
질고와가식잔난을알으신즉련하를다스리느니이제황상이출취명성하시고총명에
지하샤다행이스방에대석업거늘좌우지인이식견이업서총언가모로그평안함을경
게하야우호로요술지덕을찬양치못하코다만시절이라평함을말하야아당흔소리와

승순흔괴석이일호귀에거스리고쫓에어김이업서목전은총을요구하야부귀를탐호
고장구흔념려와김흔성각이잇는재적으니이논나의근심하논배니이제또련상이더
러하니내대신지렬에쳐하야엇지면도호리오란성이종용되왈국가대스를첩이엇지
당돌이의론하리잇고마는상공의출취삼십이못되샤출장임상하야안호로벼슬이놓
호시고밧그로병권을잡으시니군조논그과함을의심하교쇼인은그권세를식괴홀지
라비라건대상공은조영대스를천단치말으시고언론풍치를십분도회하샤위권과명
망을눈에게스양하심이도홀가하논이다연왕이잡은손을떨쳐왈내랑을지견이과인
하야록록흔장부로당치못할가하얏더니오늘밤이말은너저의구괴로다내본되남
방일포의로성주의은총을망극히업스와벼슬이왕후장상에밧쳤스니만일이몸을업
시하야국가에일분유익함이잇슬진대비록만번죽으나스양치아닐지니엇지령히부
월을두려조신지척을도라보리오란성이샤레왈상공의말씀은명월이조림하시니첩
이엇지우려다시되답할배잇스리잇고마는첩은드르니조물이원만함을식괴하야
등근박취이조러지고그득흔그릇이기울기쉽스오니상공은또흔이를싱각하샤렴되
함을힘쓰쇼셔연왕이묵연부답하더라차설련하차관과국가홍망이미양평안함을조
심홀지니일신으로비유컨대스지히라홀죽정신이흔모하교괴운이랄연하야벽병이
교침하논나연교로요순호흔성인으로련하를교화하야풍속과괴상이희희호호하나
교기적설의경계하논말이그어즐업고위티함이조석에잇듯함을증계하교안일함을

조심함이아니리오이때남방을평영흔후밧것근심이업슴애조영이조못하타하야스
방에무스흔듯묘당관각에철다관화하논풍괴업고궁중후원에상화도어하논즐김이
게시니필문규두에그옥흔념레만호나쥬문갑데에진쇄하논싱각이업더라연왕이미
양이를근심하야조반에오른죽충성된말슴과정직흔풍치내몸을니저령히부월을스
양치아닐괴상이잇스니군조논그덕망을우려래산복두조치밧고쇼인은엄위함을
겁하야더욱모해홀괴회를기드리나풍운어슈에군신이상득하니쳐바금패의춤설이
엇지형하리오광음이홀홀하야봄이진하교녀름이되야던괴극열홀지라련제만괴지
가에후원에피셔하시더니일일은월석이명랑홀되상이근시를다리고놓히림하샤
완월하실시홀연풍편에성황소리단속쳐절하야운쇼에들니거늘상이본되음물에총
명이게시더니이윽히드르시고좌우를보샤왈이소리어디서나는뇨아라오라하신대
익레그소리를聒아흔곳에니르니장안쇼년이일기남조를다리고탕춘디에올나완월
하며부논지라익레그부논자를잡아꺾하에디령하교알외니상이쇼와짐이다만그부
논자를알고져함이니엇지잡아오뇨하시고불너보심애미목이청슈하교거지첩리하
야용모괴석이너저와방불흔지라상이문왈너논엇더흔사람이며성명은무엇인다디
왈쇼신의성은동이오명은홍이니황성사람이로소이다상이미쇼와부논성황을가져
온다홍이요간으로성황을내여드릴소매를떨쳐량슈로밧들어환시를주니그쥬션
함이십분민첩하야조곰도얼을함이업거늘상이임의그령리함을기리시고천히바다